

통합치료연구

제7권 제2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선우현(명지대학교)

부 회 장 : 홍혜영(명지대학교)

총 무 : 노남숙(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최광현(한세대학교) 김은연(명지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Dr. Felicity Baker(The University of Melbourne)

국제교류위원회 : 권수진(Maryville University)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윤 리 위 원 회 : 이은경(명지대학교) 송민애(연세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유경훈(숭실대학교) 정은정(명지대학교) 최정현(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문소영(명지대학교)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학제 간 연구위원회 : 박은선(명지대학교) 양심영(송의여자대학교) 조민지(평택대학교)

간 사 : 정혜전 양진옥 변지혜

감 사 : 김수지(이화여자대학교) 최명선(명지대학교)

〈차 례〉

- 여대생의 성인 애착 불안과 신체불만족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가치 내면화의 매개효과 검증
김경희 5
 - 직장인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이성령 · 홍혜영 35
 -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혜전 59
 -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자존감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분석 -
노우빈 · 홍혜영 81
-
-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103
 - <별첨 2> 투고규정 / 106
 -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107
 -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114

여대생의 성인 애착 불안과 신체불만족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가치 내면화의 매개효과 검증

김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는 여대생의 성인 애착 불안과 신체불만족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가치 내면화라는 개인 내적인 변인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취약성, 탄력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서울 소재의 2개 대학을 선정하고, 교양 수업을 듣는 여대생 501명을 표본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 최종적으로 4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신체불만족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경우 심리적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을 탐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내담자의 애착관계는 어떠한지 즉,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성향 등을 살펴보고 애착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찾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탐색해 보는 것이 신체불만족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여성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핵심어 : 성인 애착불안, 신체불만족,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가치 내면화

* 본 연구는 김경희(2010)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인 애착 불안과 신체불만족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가치 내면화의 매개효과 검증”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김경희(seal1010@hanmail.net)

■ 게재 신청일 : 2015년 11월 23일 ■ 최종 수정일 : 2016년 1월 19일 ■ 게재 확정일 : 2016년 1월 22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모가 능력이라고까지 평가받는 사회적 풍토에서 아름다움, 매력은 대인지각의 후광효과로 작용하여 개인의 행복, 사회적 성공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젊은 여성들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박정희(2006)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이어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이전에 다이어트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체 표집의 84.1%를 차지했다. 또한 2009년 9월 2일 CBS뉴스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발표되었는데, 실제 체질량 지수로 본 비만 비율이 4%정도였음에도 응답자의 47.5%가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인 유니레버 뷰티브랜드 도브가 25세~59세의 한국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 신체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13%만이 “자신의 현재 몸매에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20대 여성은 오직 9%만이 자신의 몸매에 만족한다고 답변 하였는데, 이 수치는 40~50대 여성의 답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위 기사들을 종합해보자면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날씬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자신의 외모에 보다 큰 불만족을 보이는 연령층이 20대 여성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 매력을 위해 애를 쓰도록 더 많은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기 때문에(Stice, Schupack-Neuberg, Sharw, & Stein, 1994) 아름다움, 신체와 관련한 여성의 심리, 행동 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학문분야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Heatherton, Mahamedi, Striepe, Field7, & Keel, 1997). 이들 연구를 기초로 살펴보면, 현대 사회의 상당수 여성들은 신체 불만족을 이유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무리한 다이어트를 감행하다 섭식장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한다(Thompson et al.,1999). 박수정, 손정락(2002)등의 다른 여러 국내 연구에서도 신체 만족도와 우울증이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체상’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으로 확장하여 살펴본 연구자는 Price(1986)이다. 그는 신체상의 개념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예. 문화, 미디어)과 시간 개념(예, 나이)으로 확장

하였다. Price는 신체상이란 어떻게 보여 지는가 하는 심리사회적 과정을 포함하며,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Cash(2004)도 외모에 대한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 내부의 주관적 경험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신체상을 자기 신체의 형태, 크기와 관련된 정신적 표상으로 정의하였으며 신체상의 형성은 역사, 문화, 사회, 개인, 생물학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시간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체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신체불만족(body image dissatisfaction)’과 ‘신체상 혼란(body image disturbance)’, ‘신체상 왜곡(body image distortion)’, ‘신체상 문제(body image problem)’와 같은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신체불만족’을 신체상의 주관적인 측면, 즉, 태도적 측면으로 보고, 자기 신체 전체와 각 부분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만족감 정도로 정의 내렸다.

신체불만족은 섭식장애, 심리적 장애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 매력을 위해 애를 쓰도록 더 많은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기 때문에(Stice, Schupack-Neuberg, Sharw, & Stein, 1994) 자기 신체에 대해 더 큰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결과도 있다(Feingold & Mazzella, 1998). 국내 연구에서도 남·여 중고생을 대상으로 신체매력,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상 지각과 자기만족도에 대한 성차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이계원, 1994).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특히 ‘여대생’에 초점을 맞추어 신체불만족에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불만족을 일으키거나 유지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성숙정도, 부정적인 언어평가, 사회문화적 접근, 사회비교의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본 연구가 있다(Heinberg, 1996; Stormer, & Thompson, 1996). 요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 요인들 중에 첫 번째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Stormer와 Thompson(1996)이 논의한 사회문화적 접근(sociocultural model)이다(Heinberg, 1996). 이 접근의 기본 전제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외모, 즉 아름다움이나 신체상에 대한 기준과 가치를 결정하거나 신체상의 발달과 유지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접근의 관점에서는 서양적인 미의 기준이 ‘과도하게 마른 몸매’를 이상화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실현 불가능한 기준에 도달하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논리로 접근하자면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신체불만족과 섭식장애는 ‘과도하게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사회적 압력이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Thompson et al., 1999; Striegel-Moor et al., 1986). ‘과도하게 마른 몸매’를 이상화하는 미디어, 개인이 이를 내면화하는 것은 신체불만족과 상관이 있는 변인이며, 이를 밝히려는 연구들은 현재에 있어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Cattarin, Thompson, Thomas, & Williams, 2000; Cusumano & Thompson, 1997; Hamilton, Mintz, & Kashubeck-West, 2007; Stice, Mazotti, Krebs, & Martin, 1998).

한국에서도 권기덕(1995), 문정신(2003)등의 신체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외모가치 내면화와 신체 존중감이 부적인 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신미영(1997)의 연구에서도 대중매체가 여성의 다이어트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모가치의 내면화가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내적 요인 중 첫 번째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성인 애착 불안’이다. 애착관계의 질이 개인의 심리적인 발달 뿐 아니라 섭식장애, 우울증 등 심리적 장애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는 성인 애착의 유형과 우울, 불안, 분노, 자존감, 대인관계 등과 연관시켜 살펴본 연구결과(임지은, 2003; 김민동, 2003; 오가혜, 2002)들은 있지만 신체상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성인 애착 불안’과 관련한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에게서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잘 반응해주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차갑고 냉정함을 경험한 아이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이 낮았다(Ackard, Neumark-Sztainer, Story, & Perry, 2006; Haudek, Rorty, & Henker, 1999; Panfilis, Rabbaglio, Rossi, Zita, & Maggini, 2003). 반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관심과 섭식 장애의 위험성이 증가와 연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harpe et al., 1998). 미국과 노르웨이의 여대생 샘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불안정한 애착형성이 부정적인 자기-개념(self-concept)을 예측하는 변인이며, 결국 준 임상적인 섭식 장애를 예측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Perry et al., 2008). 즉,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여대생의 경우 성인으로써 자기-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Self)에 대해 긍정적인 작동 모델(예를 들면, 긍정적인 자기-개념(self-concept))을 형성하고, 성인애착 불안을 덜 형성하며, 외부 단서(예를 들어,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써의 ‘성인 애착 불안’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도 연관된다. 완벽주의의 하부 요인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눈 연구에서(Frost et al., 1993)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관해 논했는데 이 중 부적응적 완벽주

의는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기대, 부모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을 포함하는(Frost et al., 1993)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애착과 관련한 연구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학습된 행동으로부터 완벽주의 성향이 나타난다는 Pacht (1984)의 연구와, 불안정 애착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Kenneth & Mirzadeh(2000)의 연구 등 지금까지도 성인 애착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더 살펴보자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불안정 애착과 관련되며 적응적 완벽주의는 안정 애착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Rice & Mirzadeh, 2000), 완벽주의가 불안정 애착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Andersson & Perris, 2000). 또한 높은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수준이 더 높음을 발견한 연구결과도 있다(Flett, Hewitt, Mosher, Sherry, Macdonald & Sawatzky, 2001). 한편 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 지향적이고, 적대적, 통제적, 비합리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과 관련 있음을 검증(김은아, 1996; 변영주, 1994; 윤은정, 2001; 장애경, 2006)하는 등 다양한 연구의 결과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관심과 섭식 장애의 위험성이 증가와 연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harpe et al., 1998). 즉,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여대생의 경우 성인으로써 자기-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Self)에 대해 긍정적인 작동 모델(예를 들면, 긍정적인 자기-개념(self-concept)을 형성하고, 성인애착 불안의 경향이 낮아져서, 외부 단서(예를 들어,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신체불만족과 관련하여 개인 내적 요인 중 두 번째로 논의 하고 싶은 것은 ‘과도하게 마른 몸매’를 이상화하는 미디어, 개인이 이를 내면화하는 것을 변인으로 들 수 있다.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Cattarin, Thompson, Thomas, & Williams, 2000; Cusumano & Thompson, 1997; Hamilton, Mintz, & Kashubeck-West, 2007; Heinberg, 1996; Stice, Mazotti, Krebs, & Martin, 1998; Tiggemann, 2002).

‘내면화’는 체형이나 신체 크기와 같이 외모에 대해 사회에서 매력적이라고 정의 내린 이상형의 기준들을 개인이 인지적으로 받아들인 정도 혹은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수정된 행동을 말한다. 이 용어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정의한 아름다운 외모의 기준이 ‘날씬함’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매력적’이라고 정의내린 신체

상의 기준은 ‘마르고 날씬한 것’(Tiggemann & Pikerling, 1993)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를 ‘외모가치 내면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행동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그것이 미디어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외모가치 내면화에 있어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디어의 영향력은 정치, 사회, 문화를 막론하고 논의되는 주제이다. 이런 미디어의 영향력을 개인적 장면으로 옮겨오면, 외모를 강조하는 미디어와 이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의 관계로 살펴볼 수 있다. 미디어가 ‘과도하게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보낸다면 개인은 이것을 내면화하고,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도하게 마른 몸매’에 대한 높은 신념은 신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다(한미정, 2000). ‘과도하게 마른 몸매’를 이상화하는 미디어로 인해 일반 여성들은 과도한 다이어트나 성형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노력을 한다 해도 젊음, 큰 키, 긴 다리, 체중 등 변화시킬 수가 없는 유전적 요인들 때문에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Heinberg, 1996; Thompson et al, 1999).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그 예를 찾아보자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다이어트 관련 서적이 증가하고 잡지 광고에 등장하는 마른몸매의 모델수가 증가한 사실에서도 이를 엿 볼 수 있다.

현대의 미의 기준에는 서구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데 외모가치 내면화와 관련해 미국 사회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이 패션 잡지를 많이 읽을수록 마른 몸매의 모델을 더 이상적인 신체로 받아들였다는 결과를 내놓은 1999년의 Thompson과 Heinberg의 연구, 매력적인 모델이 등장하는 메시지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미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연구 결과 등에서 실생활에서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나타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도하게 마른몸매를 강조하는 미디어를 많이 접할수록 여성들은 자신의 몸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서구 문화의 기준,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전달하는 과도하게 마른 몸매에 대한 이상화가 신체상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다(Heinberg, 1996; Tiggemann, 2002).

한국에서는 외모가치 내재화가 신체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문정신, 2003)와 대중매체가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모가치 내재화가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지만(신미영, 1997),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개인 내적인 특성 중 외모지향성이 상향비교를 과도하게 하게 한다

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단순히 TV등의 미디어에 노출된다고 해서 신체불만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외모지향성이 상향비교와 사회적 규범화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신체불만족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자기감시성’ 등의 요인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 때문에 외모가치 내면화의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신체 이미지와 관련한 미디어 메시지가 젊은 여성의 신체상 만족도, 자아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매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거나 연구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외모가치 내면화는 신체불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lower, Loxton, Grady-Flessner, Occhipinti, & Dawe, 2003). 어떤 연구는 매스미디어의 이용과 신체 이미지 왜곡, 혹은 신체 불만족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발견했는가 하면, 또 어떤 연구는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보타(Botta, 1999)가 지적한 것처럼 매스미디어와 신체불만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수수께끼의 파편 조각만을 밝혔을 뿐이라 할 수 있다.

외모가치 내면화가 신체불만족과 섭식장애등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위의 연구 결과들이 증명되면서, 이제는 외모가치 내면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연구의 관심이 옮겨가는 추세이다. 신체불만족이 높은 사람들은 왜 외모가치의 내면화를 더 많이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외모가치 내면화의 영향력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자존감이나 미디어 노출, 외모 비교행동 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 외모가치 내면화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인차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많다(Thompson et al., 1999; Thompson & Stice, 2001).

이런 개인차 변인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미의 기준을 내면화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을 대상관계이론, 대인관계이론,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 이론들을 확장하면, 어린 시절 부모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여성의 경우 미디어가 묘사하는 미의 기준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적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가족, 친구,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Stice, 1998)은 과도하게 마른 몸에 대한 이상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며, 개인 내적인 사회비교(윤태일, 이명천, 2002), 자기감시성(문정신, 2003; 임인숙, 2004) 등의 요인이 사회문화적 기준을 더 잘 내면화 하도록 하는 매개역할을 한다. 또 다른 개인내적인 요인으로는 외모지향성이나 상향비교 성향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다시 이것을 하위의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에 대한 서구 문화의 기준, 미디어의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들이 외모가치를 내면화하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호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들은 외모가치 내면화에 있어서 어떠한 개인내적인 요소가 취약성, 탄력성을 가지게 하는지에 대한 쪽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다(Crago, Shisslak, & Ruble, 2001; Striegel-Moore & Cachelin, 1999). 그렇다면 신체불만족이 높거나 섭식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 때문에 ‘과도하게 마른 몸매’를 이상화하는가. 이에 대해서 Thompson과 Stice(2001)는 날씬한 이상형에 대한 내면화를 일으키는 것에 어떤 개인차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가치 내면화의 경향성, 신체불만족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대, 부모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Frost et al, 1993).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불가능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대해 강박적인 압박을 느끼며, 성취욕구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쓴다(Burn, 1980; Slaney, Johnson, Ashby & Trippi, 1995).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 본다면 완벽주의자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았을 때, 정상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매우 민감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외모기준 자체가 도달하기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이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때문에 신체에 대해 더 큰 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성인애착, 신체불만족, 외모가치 내재화, 완벽주의는 심리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서로 간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안한 연구 주제들을 통합하여 네 가지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성인애착과 신체불만족의 관계에 있어서 외모가치 내면화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한다. 특히 신체불만족을 주로 호소하는 연령층인 20대, 사회적으로 날씬함에 대해서 강요받는 여성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가설이 검증되면 상담 장면에서 신체 불만족으로 우울을 호소하거나,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 수술을 고민하며 정신적 고통의 겪고 있는 여대생들에게 외모가치 내면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을 적용해 본다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탐색하고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좀 더 나은 상담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여대생에게 있어 성인 애착 불안, 신체불만족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가치 내면화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1. 성인 애착 불안이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부분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성인 애착 불안이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외모가치 내면화가 부분매개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 소재의 S대와 E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5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강좌는 전 학년이 수강하는 과목인 교양수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리학 교양수업을 듣는 학생 99명, 리더십 수업 3개 반 학생인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총 501명 가운데 한 번호로만 응답하거나 잇단 결측치가 3개 이상인 설문지는 제외하고, 총 487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성인기 낭만적 애착 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ECR)

‘성인 애착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등(1998)이 개발하고 정태연 등(2001)이 번안한 성인기 낭만적 애착 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ECR)를 사용하였다.

성인기 낭만적 애착 척도(ECR)는 성인기 애착의 두 차원인 불안(anxiety)과 회피

(avoidance)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자기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이고 ‘매우 그렇다’가 5점 이었다.

Brennan 등 (1998)의 연구에서 성인기 낭만적 애착 척도(ECR)의 Cronbach α 는 불안 차원에서 .91이었고 회피 차원에서 .94, 한국에서는 대학생 남, 여를 대상으로 한 장애경(2006)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각각 .84, .85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신체불만족과 상관관계가 입증된 ‘성인 애착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18개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5였다.

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사용하였다. FMPS는 총 35문항이며,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들 중 개인 기준과 조직화는 적응적 완벽주의 척도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빼 나머지 4개의 척도를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포함시켰다 (Frost et al., 1993). 5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점수 범위는 35-1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진원(199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Frost 등(1990)의 연구에서 FMPS의 Cronbach's α =.90, 각 하위척도별 Cronbach α 는 .77에서 .93의 값이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황혜리(2002)가 Cronbach α =.89, 윤지현(2004)에서의 Cronbach α =.88을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개 하위 척도의 전체 Cronbach α = .88로 나왔다.

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3-Revised: SATAQ-3R)

‘외모가치 내면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Thompson, Van den Berg, Keery, Williams, Shroff, Haselhuhn와 Boroughs(2000)가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3-Revised: SATAQ-3R) 척도의 세 번째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SATAQ-3R은 외모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기

는 외모 기준에 대해 개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 총 38문항이며, 5개 하위 척도중 내면화(Internalization)를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는데, 총 13문항(예, 나는 내 몸이 잡지에 나오는 모델들처럼 보였으면 좋겠다)이었으며, 5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SATAQ-3R은 윤지현(2005)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내면화(Internalization)에 대한 Cronbach $\alpha=.90$ 이었다.

라. 신체-자아관련 다차원 설문(Multidimensional Body Self-Relations Questionnaire: MBSRQ)

신체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Brown, Cash와 Mikulka(1990)가 개발한 신체-자아관련 다차원 설문문항(Multidimensional Body Self-Relations Questionnaire: MBSRQ)을 사용하였다. MBSRQ는 총 69문항이며, 8개의 하위 척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MBSRQ의 8개 하위 척도 중 외모평가(MBSRQ-AE)와 신체부분 만족도(MBSRQ-BASS)를 사용하였다. 외모평가(MBSRQ-AE)는 자신의 전반적인 신체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7 문항으로 구성(예, 내 몸은 섹시한 매력이 있다)되어 있다. 신체부분 만족도(MBSRQ-BASS)는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을 뜻하며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명(1999)이 변안한 도구를 다시 윤지현(2004)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윤지현(2004)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가 .79였으며, 여자 대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주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부분 만족도(MBSRQ-BASS)의 Cronbach α 가 .82, 외모평가(MBSRQ-AE)의 Cronbach α 가 .78이었다.

3. 연구절차

설문조사는 9월 말에서 10월에 걸쳐 3주 동안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목적은 모르는 대학원생 2명이 함께 실시하되, 연구자는 설문지를 나눠주는 보조역할만 하였다. 교양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 연구는 여대생의 대인관계유형이 신체상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간략히 소개하고, 비밀보장 약속과 맞고 틀린 답은 없으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히 작성해줄 것을 부탁한 후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67문항의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7분~10분 내외였다.

4. 분석방법

첫째,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하고 변인들 간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우선,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매개효과를 검증 한 모형을 경쟁모형과 비교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고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토하였다.

모델과 가설을 검증하는데 사용된 유효한 표본의 수효는 총 487개 였으며, 계수 추정을 위한 최대우도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입력 자료는 SPSS 17.0을 사용하였고, 구조 모형 검증에는 AMOS 7.0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가.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자료를 구조방정식으로 확인하기 전에 정상성 확인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했다.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의 기본 가정인 자료의 정상성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다. 이때 왜도가 2.0보다 작고, 첨도 7.0보다 작은 경우에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미지수를 추정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또한 이를 통해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의 적격성이 만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이,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의 기본적인

인 가정인 다변량 정상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487)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성인애착 불안	2.73	.52	-.29	-.10
부적응적 완벽주의	2.74	.54	.13	.41
실수염려	2.77	.68	.31	-.04
수행의심	2.88	.73	.02	-.04
부모비난	2.08	.68	.50	-.17
부모기대	3.10	.76	.06	-.20
외모가치 내면화	3.20	.64	.14	.05
신체불만족	3.01	.58	.11	.40
외모평가	2.97	.59	.05	.34
신체부분 만족도	3.09	.71	.27	.27

나.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487)

	1	2	3	4	5	6	7	8	9	10
성인애착 불안	1									
부적응적 완벽주의	.33**	1								
부모기대	.14**	.68**	1							
부모비난	.18**	.68**	.42**	1						
수행의심	.32**	.71**	.24**	.35**	1					
실수염려	.33**	.89**	.41**	.47**	.60**	1				
외모가치 내면화	.31**	.31**	.16**	.05	.28**	.30**	1			
신체불만족	.18**	.41**	-.01	.27**	.27**	.27**	.11**	1		
외모평가(AE)	.20**	.24**	-.02	.25**	.26**	.29**	.16**	.95**	1	
신체부분 만족도(BASS)	.12**	.24**	.01	.30**	.23**	.29**	-.02	.88**	.70**	1

※ ** $p < 0.01$, 양방검증

Cohen 등(2003)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2~.4의 상관값은 약간의 관련성을, .4~.7은 상당한 관련성을, .7이상은 매우 강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신체불만족의 관계($r=.41, p<.01$)는 각각 유의도 수준 .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 따라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인 애착 불안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r=.33, p<.01$)로 약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가치 내면화의 관계 ($r=.31, p<.01$), 성인 애착 불안과 외모가치 내면화도 ($r=.31, p<.01$) 약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성인 애착불안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로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된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4가지 하위 요인인 실수 염려, 수행 의심, 부모 비난, 부모 기대가 다른 변인과 보이는 상관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수행의심과 성인애착불안이 ($r=.32, p<.01$)의 상관관, 실수염려가 ($r=.33, p<.01$)의 상관관, 외모가치 내면화와 신체불만족은 ($r=.11, p<.01$)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2. 측정모형 검증

측정 모형의 검증을 위해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구조방정식의 전체 모형을 구성하고,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의 절차에 따라 이를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대신 적합도 지수를 이용했는데, χ^2 검증의 영가설(모형이 자료를 완벽하게 설명한다)은 엄격해서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표본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적합도 지수중에서 표본 크기에 대한 민감성이 덜한 TLI(Tucker 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이 지수들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는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TLI, CFI 값은 0.9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RMSEA 값은 0.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0.10이면 보통 적합도, 0.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김아름, 2009 재인용).

전체모형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는, TLI, CFI, RMSEA가 기준을 만족시켜 모형이 수용되었고 모든 측정변수들의 요인계수가 유의미하여 각 측정변수들의 수렴타당도가

지지되었다(Anderson & Gerbing, 1988). 전체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model	df	χ^2	TLI	CFI	RMSEA
측정모형	16	50.765(p=.000)	.916	.935	.086(.063~.111)

※ *** $p < 0.01$

3. 구조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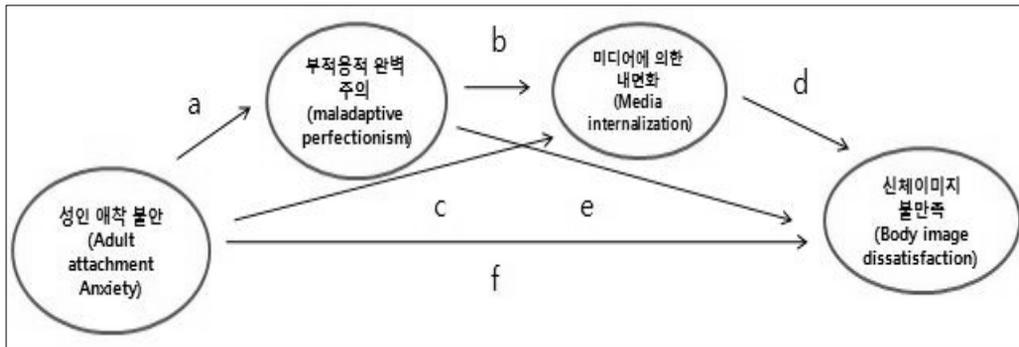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 불안’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가치 내면화’,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성인 애착 불안과 신체불만족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가치 내면화가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매개모형을 평가하는 절차는 다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홍세희, 2001).

첫째, 예언 변인에서 결과변인으로 가는 경로 a와 매개변인에서 결과변인으로 가는 경로 b가 유의미한지, 그리고 매개효과 ab가 유의미한지 부분 매개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가치 내면화의 이중매개효과를 가정하므로, 이 단계에서 예언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 a와 매개변인 사이의 경로 b, 매개변인에서 결과변인으로 가는 경로 d가 유의미한지, 이중매개효과 abd가 유의미한지를 부분 매개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면, 매개모형을 지지할 수 있으므로 매개변수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지, 완전 매개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전체효과 중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매개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보고한다. 직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직접효과를 전체효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간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간접효과를 전체효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 불안,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가치 내면화와 신체불만족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가. 매개효과 검증

위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를 설정하기 위해 a~f의 경로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또한 이중매개효과 abd가 유의미한지를 검토하였다.

〈표 4〉 매개효과 검증결과

(N=487)

경로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value	p
성인애착불안 -> 부적응적 완벽주의(a)	.324	.031	5.357	***
부적응적 완벽주의 -> 외모가치 내면화(b)	.228	.121	4.094	***
성인애착불안 -> 외모가치 내면화(c)	.253	.050	5.610	***
외모가치 내면화 -> 신체불만족(d)	-.025	.044	-4.87	.626
부적응적 완벽주의 -> 신체불만족(e)	.408	.141	5.320	***
성인애착불안 -> 신체불만족(f)	.013	.049	.258	.796

※ *** $p < .001$

매개효과 검증에는 Sobel(1986)을 사용하여 z검증을 하였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H_0 : abc = 0$$

$$Z_{abc} = \frac{abc}{SE_{abc}} = \frac{abc}{\sqrt{a^2b^2SE_c^2 + a^2c^2SE_b^2 + b^2c^2SE_a^2}}$$

검증 결과 각 경로 d와 f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가 .001수준에서 유의미했으나 abd의

이중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존에 설정한 이중매개의 연구모형은 지지되지 않았고 수정을 요하게 되었다.

나. 전체 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 6>에 최종 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는 다음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성인 애착 불안이 신체불만족을 설명하는 총 효과 중, 매개변인을 통해 설명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전체의 91%로 나타났다.

비록 성인 애착 불안이 신체불만족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gamma=.013$) 성인 애착 불안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신체불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인애착불안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124, $p<.01$)하게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성인애착 불안이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총 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는 아래와 같다.

<표 5> 독립, 종속 변인의 직, 간접 효과

경로	(비율%)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인애착불안 --> 신체불만족	.013(9%)	.124**(91%)	.13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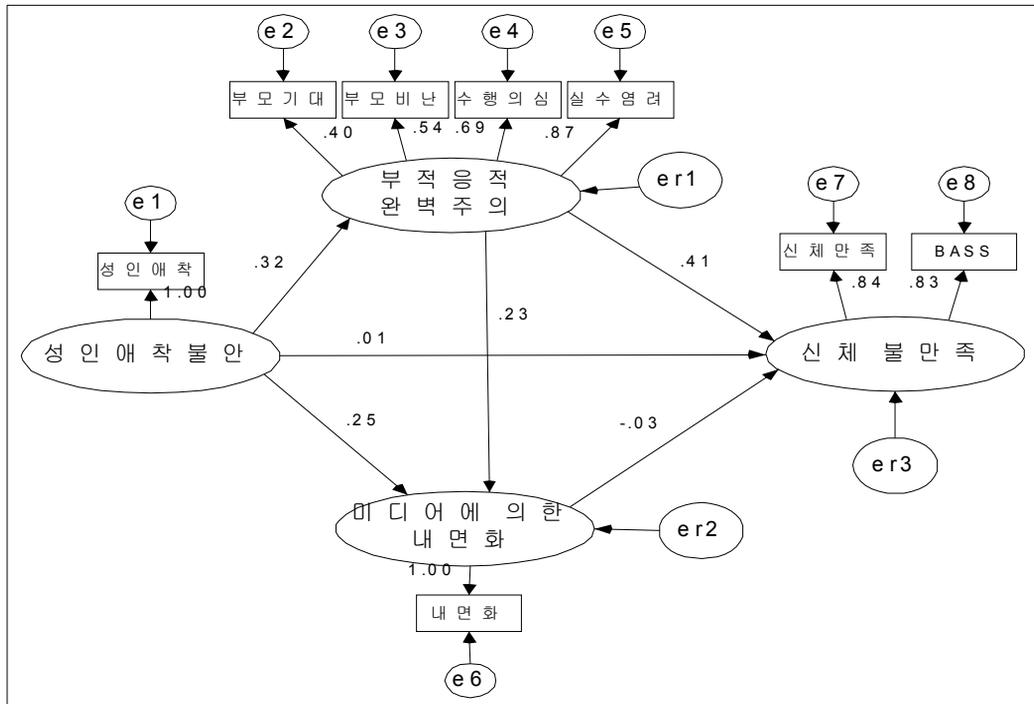
※ ** $p<.01$

<표 6> 최종모형의 직, 간접 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인 애착 불안 -> 부적응적 완벽주의	.324	-	.324
성인 애착 불안 -> 외모가치 내면화	.253	.074	.327
성인 애착 불안 -> 신체불만족	.013	.124	.138
부적응적 완벽주의 -> 외모가치 내면화	.228	-	.228
부적응적 완벽주의 -> 신체불만족	.408	-.005	.403
외모가치 내면화 -> 신체불만족	-.025	-	-.025

모형의 추정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매개 변인 중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한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인 애착 불안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

로 유의미하였고($r=.324$), 부정응적 완벽주의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도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408$). 또한 성인 애착 불안이 외모가치 내면화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였으며($r=.253$), 부정응적 완벽주의가 외모가치 내면화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였다($\beta=.228$). 즉, 성인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지고 이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할 확률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응적 완벽주의의 성향도 높아져서 이를 통해 외모가치 내면화가 심화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 N=487, ***p< .001

〈그림 2〉 최종모형에서 나타난 변인 간 최종 추정 결과

IV. 논 의

1. 요약 및 논의

여성에게 있어서 신체불만족은 과도한 다이어트의 동기가 되며, 다양한 정서 장애, 섭식 장애 등과 상관이 있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변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사회·문화적 요인, 개인 내적인 요인 등 염두 해야 하는 범위 또한 상당하다. 또한 모든 젊은 여성들이 신체불만족을 느낀다는 이유로 섭식 장애나 다양한 정서 장애 등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약성, 탄력성을 가져오는 개인 내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인 요인인 성인 애착 불안과 신체불만족의 관계를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가치 내면화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영향력에 대한 검증을 해보고자 하였다.

구조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성인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신체불만이 높아지는 것과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구조모형의 각 경로의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애착 불안은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로 하여 신체불만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애착 불안이 높다고 해서 신체불만족의 경향 또한 높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개인 내적인 특성이자 취약성이라 할 수 있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을 높였을 경우에만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성인 애착 불안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애착 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경향 또한 심화된다는 Kenneth와 Mirzadeh의 2000년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여대생의 경우 부모기대, 부모비난, 실수염려, 수행의심 등의 하위 척도들을 가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에게 있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경향이 심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 또한 심해진다는 것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이 신체불만족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되었던 임인숙의 2004년 연구결과와 같이 사회비교, 자기 감

시성, 마른 몸매에 대한 사회적 규범화 등을 심화시키고 이것이 신체불만족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외모기준 자체가 도달하기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이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큰 불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특징들을 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신체불만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넷째,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외모가치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경향이 심해질수록 미디어가 전달하는 ‘과도하게 마른 몸매’를 더 잘 내면화 한다는 결과이다. 완벽주의자들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았을 때, 정상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매우 민감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외모기준 자체가 도달하기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이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때문에 신체에 대해 더 큰 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

다섯째, 성인 애착 불안은 외모가치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미디어에서 전하는 ‘과도하게 마른 몸매’를 내면화하는 경향 또한 높아짐이 증명되었다. 이는 2004년 Greenwood 와 Pietromonaco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여대생의 성인 애착 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미디어가 묘사하는 미의 기준인 날씬하고 매력 있는 모습을 더 강하게 내면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외모가치 내면화는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낮은 수준의 성인 애착 불안이 미디어가 전하는 미의 기준인 ‘과도하게 마른 몸매’를 내면화하는 수준을 낮춰주어 신체불만족의 수준 또한 낮아진다는 기존의 이론들인 대상 관계적 관점에서의 Blatt의 2004년 연구, 대인관계 이론가인 Sullivan의 1997년 연구, 애착 이론가인 Bowlby의 1988년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모가치 내면화가 여대생의 신체불만족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를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Cattarin et al., 1998; Hamilton et al., 2007; Stice et al., 1998; Thompson et al., 2004) 이 연구에서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인애착불안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가치 내면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외모가치 내면화와 신체불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인애착불안과 외모가치 내면화는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 애착 불안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해서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끼친다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성인애착 불안과 신체불만족간의 관계를 부적응적 완벽주

의와 외모가치 내면화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비록 이 연구를 시작할 때 가정한 모든 가설이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Bootstrap 절차를 통해서도 성인 애착 불안과 신체불만족간의 상관관계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 장면에서 신체불만족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내담한 경우 관련한 변인의 탐색에 있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을 탐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는 현재 성인 애착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즉,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성향 등을 살펴보고 애착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찾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것이 신체불만족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여성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이 이 연구를 통해 검증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많은 실험연구 등에서 그간 검증되어 온 외모가치 내면화와 신체불만족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이 또한 더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개인 내적인 요인들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탐색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다른 연구를 위해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연구의 전반적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샘플과 관련한 차이점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 상위권에 속하는 서울의 두 개 여대에서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결과가 표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여대생 집단에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상을 고르게 표집 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신체불만족 척도, 외모가치 내면화 척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신체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경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부분만족도 척도(BASS)나 외모평가(AE)보다는 BDS-EDI(Body Dissatisfaction Subscale of the Eating Disorders Inventory), VAS(Visual Analogue Scale), BES(Body Esteem Scale) 등의 척도가 더 자주 이용된다. 또한 외모가치 내면화 척도의 경우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처럼 SATAQ-3R을 사용하였지만 전체 척도가 아닌 5개 하위척도 중 내면화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만을 사용한 것은 이 연구가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나온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모가치 내면화에 있어서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도 신체불만족의 상관이 낮게 나온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의 미디어 이용행태는 인터넷 매체의 영향

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적 매체와 차별성을 보이는 인터넷의 영향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설문지 경우 자기-보고식 검사로 실시되었다는 점이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자기-보고식 검사가 가지는 다양한 제한점들을 고려할 때 (Heppner, Kivlighan, & Wampold, 1999) 실험 연구가 더 적합했을 가능성이 있다. 설문지 앞서 광고 등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지각 정도의 측정 후 상향비교에 의해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신체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전체 경로를 측정하는 경우 지금보다 상관관계의 입증에 잘 되었을 것이다.

다섯째, 정확한 척도의 사용이 필요하다. 위에서 논의한 ‘상향비교 문항’의 경우 ‘광고 모델의 날씬한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 한다’ 등의 문항이고 마른 몸매에 대한 ‘사회적 규범화’의 문항은 본 연구에서 쓰인 SATAQ 척도이다. 이는 신체불만족과 관련한 내면화 연구 시에는 상향비교를 측정하는 설문인지 사회적 규범화를 측정하는 문항을 잘 구분하여 쓸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개인내적인 요인 중의 외모지향성의 정도가 이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홍중필과 이시연의 2005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모 지향성이 강한 집단의 노출 조건에 따른 상향 비교 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각각 평균이 4.40점과 3.58점으로 외모 지향성이 강한 여성의 경우가 TPM 광고에 노출되면 비노출 집단보다 상향 비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내적인 요인 중의 외모지향성의 정도가 신체 불만족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연구 진행시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임을 나타내주는 결과라 하겠다.

일곱째,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연구에서 입증된 외모가치 내면화와 신체불만족의 관계가 상관값 계산 시에 + 부호였지만, 직, 간접 효과 분석에서 -로 부호가 바뀌었다. 이는 측정도구들이 상호작용 효과로 실제 효과가 상쇄되었거나 측정치에 있어서 오류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결과로 추후에 이 경로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처음에 제시한 가설 중 하나인 외모가치 내면화와 신체불만족의 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인 애착 불안의 경우 부적응적 완벽주의라는 개인 내적인 요소가 매개가 되어 신체불만족이 나타난다는 것이 결과로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신체불만족을 호소하며 고민하는 여대생이 내담한 경우 상담 장면에서 탐색해보아야 하는 개인 내적인 요소를 검증해준 연구이며, 이 연구에서 부족했던 사항들이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 이루어진다면 더 정확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고 문헌

- 권기덕(1995). 신체상에 관한 연구: 개념과 평가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회지, 16(3), 23-42.
- 김민동(2003).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 일반청소년 집단과 재소 중인 비행청소년집단과의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름(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구실만들기 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존감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아(1997). 부모와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정신(2002). 공적 자기의식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가치의 내재화와 신체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 손정락(2002). 인지 행동치료가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여대생의 신체상 만족도, 자아 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335-351.
- 박정희(2006). 여대생들의 체형의 인식과 다이어트 실태조사. 한국스포츠리서치, 17(6), 713-722.
- 변영주(1995).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스트레스의 상호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영(1997). 대중매체가 여성의 다이어트와 섭식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가혜(2002). 수줍음과 우울에 대한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정(2001). 애착과 성취동기가 완벽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현(2005). 여자 대학생의 신체불만족, 외모가치 내재화, 완벽주의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태일, 이명천(2002). 텔레비전 시청이 육체이미지 혼란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역할과 육체이미지 처리의 매개역할. 한국방송학보, 16(3), 331-363.
- 이계원(1994). 청년기의 신체상이 자기만족, 불안 및 자기 표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인숙(2004). 다이어트의 사회문화적 환경: 여대생의 외모차별 경험과 대중매체의 몸 이미지 수용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8(2), 165-187.

- 임지은(2003).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인불안간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경(2006).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우울수준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2001).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85-102.
- 조선명(2000).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정(2000). 신체 이미지 관련 TV메시지 처리방식이 여대생의 신체만족감과 다이어트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14(3), 291-317.
- 현진원(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리(2001).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심리적 특성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종필, 이시연(2005). 잡지 속의 신체 이미지 광고에 대한 노출이 20대 여성의 기분과 신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문화, 4, 73-118.
- Ackard, D. M., Neumark-Sztainer, D., Story, M., & Perry, C.(2006). Parent-child connectedness and behavioral and emotional health among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0, 59-66.
- Anderson, J. 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dersson, P., & Perris, C.(2000). Attachment style and dysfunctional assumptions in adult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 47-53.
- Blatt, S. J.(2004). Assessment of object representation. In S. J. Blatt (Ed.), Experiences of depression: Theoretical, clin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25-148.
- Botta, R. A.(1999). Television images and adolescent girls'f body disturbance. *Journal of Communication*, 48, 22-41.

- Bowlby, J.(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Shaver, P.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 Brown, T. A., Cash, T. F., & Mikulka, P. J.(1990). Attitudinal body image assessment: Factor analysis of the Body 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135-144.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urns, D. D.(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 defeat. *Psychology Today*, 11, 34-51.
- Cash, E. C.(2004). Body image: past, present, and future. *Body Image*, 1, 1-5.
- Cattarin, J. A., Thompson, J. K., Thomas, C. & Williams, R.(2000). Body image, mood, and televised images of attractiveness: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220-239.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 /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Hillsdale. NJ: Erlbaum.
- Crago, M., Shisslak, C. M., & Ruble, A.(2001).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eating disorders*. In R. H. Striegel-Moore & L. Smolak (Eds.), *Eating disorders: Innovative directions in research and pract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usumano, D. & Thompson, J. K.(1997). Body image and body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 701-721.
- Feingold, A., & Mazzella, R.(1998). *Gender difference in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Flett, G. L., Hewitt, P. L., Mosher, S. W., Sherry, S. B., Macdonld, S., & Sawatzky, D. L.(2001).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attachment sty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Toronto, Ontario, Canada.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Neubauer, A. L.(1993). A

-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4, 119-126.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Greenwood, D. N., & Pietromonaco, P. R. (2004). *The interplay among attachment orientation, idealized media images of women, and body dissatisfaction: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In L. J. Shrum (Ed.), *The psychology of entertainment media: Blurring the lines between entertainment and persuasion*. Mahwah, NJ: Erlbaum.
- Hamilton, E. A., Mintz, L. & Kashubeck-West, S.(2007). Predictors of media effects on body dissatisfaction in European American women. *Sex Roles*, 56, 397-402.
- Haudek, C., Rorty, M., & Henker, B. (1999). The role of ethnicity and parental bonding in the eating and weight concerns of Asian-American and Caucasian college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5, 425-433.
- Heatherton, T. F., Mahamedi, F., Striepe, M., Field, A. E., & Keel, P. K.(1997). A 10-year longitudinal study of body weight, dieting,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117-125.
- Heinberg, L. J. (1996). *Theories of body image disturbance: Per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J.K. Thomson (Ed.), *Body image,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An integrative guide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Washing D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 Heppner, P. P., Kivlighan, D. M., Jr., & Wampold, B. E.(1999). *Research design in counseling*. Belmont, CA: Wadsworth.
- Kenneth G. Rice & Mirzadeh. S. A.(2000). Perfectionism, Attach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238-250
- Pacht, A. R.(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Panfilis, C. D., Rabbaglio, P., Rossi, C., Zita, G., & Maggini, C. (2003). Body image disturbance, parental bonding and alexithymia in 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 *Psychopathology*, 36, 239-246.
- Perry, J. A., Silvera, D. H., Neilands, T. B., Rosenvinge, J. H., & Hanssen, T.(2008).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onding, self-concept and eating

- disturbances in Norwegian and American college populations. *Eatiniors*, 9, 13-24.
- Price, B. (1986). Keeping up appearance. *Nursing Times*, 83, 58-61.
- Rice, K. G., & Mirzadeh, S. A.(2000). Perfectionism, attach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38-250.
- Sharpe, T. M., Killen, J. D., Bryson, S. W., Shisslak, C. M., Estes, L. S., Gray, N., et al. (1998). Attachment style and weight concerns in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3, 39-44.
- Slaney, R. B., Johnson, D. P., & Ashby, J. S., & Trippi, J.(1995). Perfectionism: Its measurement and career releva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279-297.
- Stice, E., Schupack-Neuberg, E., Sharw, H. E., & Stein, R. I. (1994). Relation of media exposure to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n examination of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836-841.
- Stice, E.(1998). Modeing of eating pathology and social reinforcement o the thin ideal predict onset of bulimic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931-944.
- Stice, E., Mazotti, L., Krebs, M. & Martin, S.(1998). Predictors of adolescent dieting behaviors: A longitudinal stud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2, 195-205.
- Stormer, S. M., & Thompson,J. K.(1996). Explanations of body image disturbance: A test of maturational tatus, negative verval commentary, social comprison, and sociocultural hypohes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9(2), 193-202.
- Striegel-Moor, R. H., Silberstein, L. R., & Rodin, J. (1986). Toward an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for bulimia. *American Psychologist*, 41, 246-263.
- Striegel-Moore, R. H., & Cachelin, F. M. (1999). Body image concerns and disordered eating in adolescent girl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N. G. Johnson.
- Sullivan, H. S. (1997).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 Dunn, S.(1999). *Exacting beauty: Theory, a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Washington, DC: Aerian Psychology Association.
- Thompson, J. K., & Stice, E.(2001). Thin 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or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turbance and eating

-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 181-183.
- Thompson, J. K., Van den Berg, P. A., Keery, H., Williams, R., Shroff, H. M., Haselhuhn, G. I., & Boroughs, M.(2000). A revision and extension 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Presented at the 9th Annual Conference of the Academy of Eating Disorders, NY, NY.
- Tiggemann, M.(2002). *Media influences on body image development*.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New York: Guildford Press.
- Tiggemann, M., & Pikerling, A. S.(1993). Role of television in adolescent women's body dissatisfaction and drive for thin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0, 143-148.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handicapping Mediated by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Kim, Kyung Hee

Ewha womans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in-ideal internalization, BID, adult attachment anxiety, maladaptive perfectionism. Based on previous findings, this study examined dual mediation role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thin-ideal internalization between BID and adult attachment anxiety. Thus, in 3 sample of 487 college women, the author tested a causal chain with 3 links and 4sets of variables. 487college women in Seoul completed a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items from the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ECR),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MPS),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3-Revised(SATAQ-3R), and Multidimensional Body Self-Relations Questionnaire(MBSRQ). SPSS 17.0 program was used to examine the descriptive statistics, AMOS 7.0 program was used to condu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Result suggested that adult attachment anxiety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BID; adult attachment anxie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ID. Most important, the author finds that the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BID were mediated by maladaptive perfectionism. But, between BID and adult attachment anxiety were not mediated by thin-ideal internalization. This findings were limited by necessity of more examinations to the proposed relation with variables, yet ofer understand of perfectionism and information about treatment of eating disorder or body-dissatisfaction.

Key words :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elf-handicapping, Self-Esteem, Self-Concept Clarity

직장인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이성령* · 홍혜영**
명지대학교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직장인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불안, 자기위로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49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사회불안에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회불안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연령대별로 변인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40대 이상 집단이 20대, 30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 자기위로능력과 사회불안은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은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여성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남성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각 연령대별로 조절효과를 실시한 결과, 30대 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20대와 40대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자기위로능력이라는 부분을 통하여 치료적 개입이 가능함을 밝혀낸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핵심어 :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불안, 자기위로능력

* 본 연구는 이성령(2015)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직장인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를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 2015년 11월 20일 ■ 최종 수정일 : 2016년 1월 17일 ■ 게재 확정일 : 2016년 1월 20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적이며, 성과를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에게 확실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요구하며 이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완벽주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며(Burns, 1980), 특히, 회사라는 조직사회에서의 구성원인 직장인들은 그 요구에 순응하여 더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은정, 2010). 이렇듯 현대사회에서의 완벽주의는 자신의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배병은, 2009), 또한 완벽주의를 야망이나 성취수준으로 파악하면서 성공의 필수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노정식, 2009). Hewitt과 Flett(1991)은 이러한 완벽주의를 자가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3가지 요인으로 나누었고, 이러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중에서도 일관되게 부적응적 측면의 심리상태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면서 가장 병리적 요소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라고 보고되고 있다(하정희, 장유진, 2011).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성격장애 및 자살사고 등 여러 심리적 부적응 기제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문경, 1998; 한기연, 1993; 홍석인, 현명호 2007; Dean, Range, & Goggin, 1996; Flett, Besser, & Hewitt, 2005; Frost et, al., 1993), 부적응적 측면에서의 완벽주의는 스스로 높은 기대와 목표를 설정함으로 인해 우울, 불안, 좌절감 및 열등감, 높은 자기비난과 스트레스 등 많은 심리적인 문제와 부정정서를 일으키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김혜진, 2006; 이정윤, 조영아, 2001). 이러한 특징 등을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은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으로 인해 상황 대처능력이 저하되며 이는 개인 스스로에게 매우 심각한 심리적, 병리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불안은 사회공포증(social phobia)라고도 불리는데, 사회공포증은 낯선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 또는 어떤일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보이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당혹스럽거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보일까봐 두려워 하는 것을 의미한다(DSM-IV, APA, 1994). 대개 사회불안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평가 받게 되는 상황이나 관찰되는 상황, 그리고 상대

방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부정적 평가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최정훈, 이정운, 1994), 이러한 예상의 결과로 상황에 따라 적게는 수줍음 및 부끄러운 감정에서부터 크게는 타인을 피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며(Herbert, Rheingold, Brandsma, 2001), 이러한 모습은 사회적 기능의 다양한 측면에서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재원, 오경자, 2010).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약간의 불안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불안이 지속되고 그 강도가 높아진다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회사 내 대인관계 혹은 업무수행 상황에서 느끼는 사회불안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러한 상황 안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우울증, 강박증과 같은 정신병리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윤수영, 2001),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기제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위로능력은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적 고통의 상황을 표출함으로써 원래의 심리적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위로능력은 기분 나쁜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방법 모두를 수용하는 상호적인 개념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각하는 불안정한 정서를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Glassman, 1989; Moser, 1991). 자신이 지각하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거나 혹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표출된다면 이는 심리적 부적응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정신병리로 까지 발전(이지영, 권석만, 2006)되는 만큼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진정시키고 위로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위로 받는 것은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공세영, 2014). 또한 자기위로 능력은 자신의 심리적 내적 자원으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을 위로하는 것까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노안영, 정민, 2007)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 자원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해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지 또한 함께 수용함으로써 직장인들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해 지각하는 사회불안을 줄이는데 있어

더 효과적 일거라 기대된다.

아직까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관련하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청소년이나 대학생과 같은 대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연령대 및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나누어 본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 및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직장인들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조절효과를 유의미하게 나타내는지 확인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해 사회불안이 높아진 직장인들에게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일반 사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 연구직, 영업직, 생산직등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1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경우를 제외한 49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인원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243	49.3%
	여자	250	50.7%
연령	20대	170	34.5%
	30대	205	41.6%
	40대	89	18.1%
	50대	29	5.9%
직업	전문직	99	20.1%
	사무직	146	29.6%
	기술직	55	11.2%
	판매 및 서비스직	36	7.3%
	공무원	34	6.9%
	연구직	42	8.5%
	영업직	35	7.1%
	생산직	9	1.8%
	기타	33	6.7%

2. 측정도구

가.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본 연구에서는 한기연(1993)이 번안하고, 전명임(2009)이 리커트식 5점 척도(1점= 거의 그렇지 않다, 5점= 매우그렇다)로 변환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77을 나타내었다.

나. 자기위로능력 척도(Self 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

본 연구에서는 Glassman(1989)의 자기위로능력 척도(Self 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의 45문항을 박효서(199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자기위로능력 척도는 회복력, 스스로 위로하기, 자기노출, 신체적 위로하기의 네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리커트식 7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위로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다. 사회불안 측정도구

(1)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각각의 문항들은 사회적 상황의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기록하는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제작되었으며, 리커트식 5점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부분에 있어 불안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0을 나타내었다.

(2) 사회공포증 척도 (Social Phobia Scale: SPS)

각각의 문항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과 상대방의 시선을 지각하는 상황에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을 포함하는 대인관계 안에서의 불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리커트식 5점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불안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을 나타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결과 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에 대한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및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척도, 자기위로능력 척도, 사회불안 척도의 Cronbaha'α 계수를 산출 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위로능력, 사회불안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위로능력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 녀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령대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집단차이

전체 응답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위로능력, 사회불안에 대하여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되었던 변인들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변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t검증에 따른 결과 값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치와 t검정 결과

변인	전체(N=493)		남(N=243)		여(N=250)		t
	M	SD	M	SD	M	SD	
사회부과 완벽주의	2.95	.47	3.00	.49	2.91	.44	2.17*
자기 위로능력	4.68	.59	4.68	.60	4.67	.59	.23
사회불안	1.30	.56	1.24	.57	1.37	.55	-2.52*

※ ** $p < .05$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자기위로능력과 사회불안의 남녀 집단 간 분석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t=2.17$, $p<.05$)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사회불안($t=-2.52$, $p<.05$)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위로능력, 사회불안에 대하여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변인에 따른 결과 값은 <표 3>과 같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위로능력과 사회불안의 연령대별 집단 간 분석결과, 자기위로능력과 사회불안은 연령대별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F=5.73$, $p<.05$)에서는 연령대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40대 이상 집단이 20대, 30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연구변인의 일원 변량분석 결과

변인	연령	M	SD	F	scheff'e
사회부과 완벽주의	20대	2.89	.45735	5.73*	40대이상 >20,30대
	30대	2.94	.44823		
	40대이상	3.07	.50518		
자기위로 능력	20대	4.76	.60749	2.76	
	30대	4.65	.58693		
	40대이상	4.68	.60149		
사회불안	20대	1.28	.52502	.28	
	30대	1.30	.59357		
	40대이상	1.33	.58564		

※ * $p < .05$

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 변인인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위로능력, 사회불안간의 관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위로능력	사회불안
사회부과 완벽주의	1		
자기위로능력	-.29**	1	
사회불안	.29**	-.48**	1
M	2.95	4.68	1.30
SD	.47	.59	.56
왜도	-.10	.26	.24
첨도	.60	-.23	-.12

※ * $p < .05$, ** $p < .01$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사회불안($r = .29$,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r = -.29$, $p < .01$)에서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인인 자기위로능력과 종속변인인 사회불안($r = -.48$, $p < .01$)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3.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을, 2단계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의 상호작용 변인을 차례대로 투입해 봄으로써 주효과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사회불안을 투입하였다. 마찬가지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의 상호작용 변인을 차례대로 투입해 봄으로써 역시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조절효과를 갖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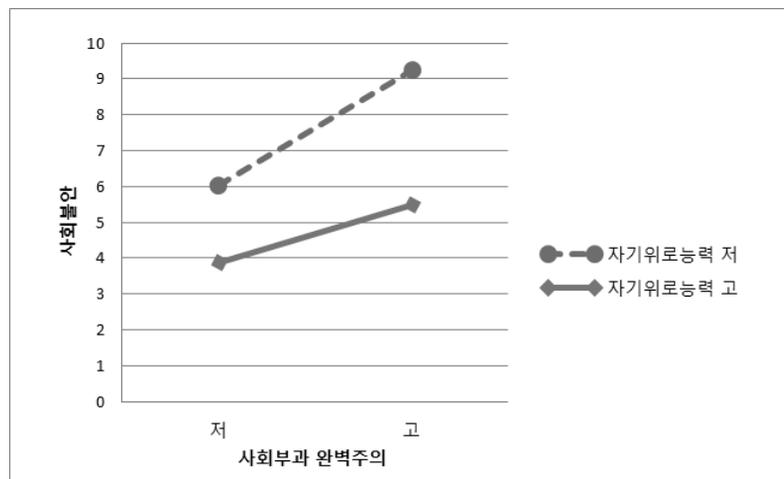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β)	2단계(β)	3단계(β)
사회불안	사회부과 완벽주의(A)	.29***	.17***	.89**
	자기 위로능력(B)		-.43***	.13
	A×B			-.78*
	R ²	.09***	.26***	.27*
	F	48.36***	86.05***	60.39***

※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며 자기위로능력의 주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높았고($\beta = .29, p < .001$), 자기위로능력을 많이 사용할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낮아

진다($\beta = -.43, p < .001$).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 하였다($\beta = -.78, p < .05$). 이는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에 따라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한 사회불안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의 상호작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고집단과 저집단, 자기위로능력의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그림 1>를 통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낮은 사람들은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불안을 적게 느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반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높게 체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기위로능력을 많이 사용할수록 사회불안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벽주의 하위변인들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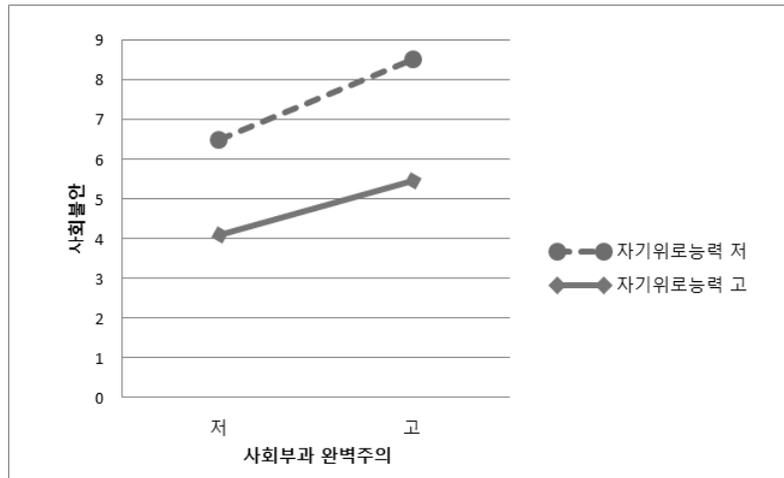
〈표 6〉 성별에 따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회귀 분석

성별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남자	사회불안	사회부과 완벽주의(A)	.31***	.17*	.86*
		자기 위로능력(B)		-.43***	.08
		A×B			-.72
		R ²	.09***	.26***	.26
		F	26.45***	43.99***	30.53***
여자	사회불안	사회부과 완벽주의(A)	.31***	.19**	1.05*
		자기 위로능력(B)		-.42***	.30
		A×B			-.96**
		R ²	.09***	.26***	.27*
		F	27.12***	44.51***	31.88***

※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여성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해 자기위로능력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았고($\beta = .31, p < .001$), 자기위로능력을 많이 사용할수록 사회불안 성향이 낮아진다($\beta = -.42, p < .001$).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eta = -.96, p < .01$). 이는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에 따라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한 사회불안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의 상호작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을 기준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고집단과 저집단, 자기위로능력의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여성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그림 2>을 통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낮은 여성들의 경우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가 나지 않고 적게 느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높은 여성의 경우는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사회불안 또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여성들이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을 높일수록 사회불안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연령대에 따라서도 자기위로능력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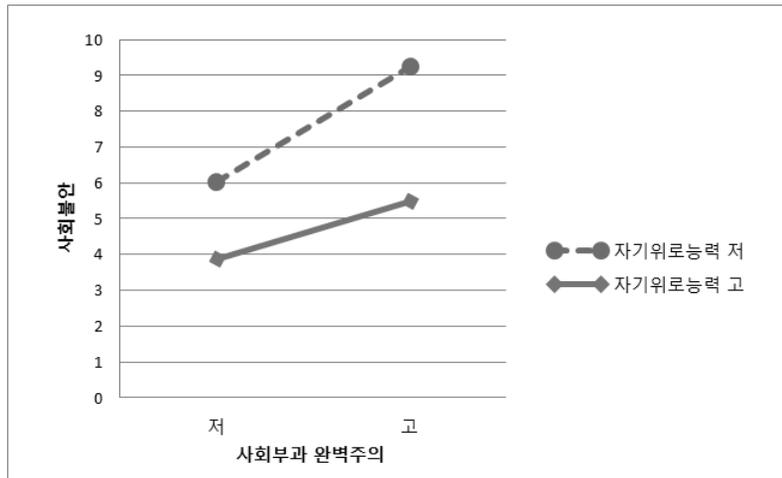
〈표 7〉 연령대에 따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회귀분석

연령대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20대	사회불안	사회부과 완벽주의(A)	.22*	.08	.53
		자기 위로능력(B)		-.44***	-.09
		A×B			-.48
		R ²	.05*	.23***	.22
		F	9.0*	25.26***	17.21***
30대	사회불안	사회부과 완벽주의(A)	.34***	.20**	1.06***
		자기 위로능력(B)		-.44***	.25
		A×B			-.92*
		R ²	.12***	.29***	.30*
		F	28.18***	43.26***	30.58***
40대 이상	사회불안	사회부과 완벽주의(A)	.30**	.23*	.92
		자기위로능력(B)		-.39***	.15
		A×B			-.80
		R ²	.09**	.23***	.23
		F	11.97**	18.89***	12.98***

※ * $p<.05$, ** $p<.01$, *** $p<.001$

분석결과, 30대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해 자기위로능력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대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았고($\beta = .34$, $p < .001$), 자기위로능력을 많이 사용할수록 사회불안 성향이 낮아진다($\beta = -.44$, $p < .001$).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eta = -.92$, $p < .05$). 이는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에 따라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한 사회불안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30대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의 상호작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을 기준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고집단과 저집단, 자기위로능력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3〉 30대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그림 3>을 통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낮은 30대의 경우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가 나지 않고 적게 느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높은 30대의 경우는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사회불안 또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30대가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을 높일수록 사회불안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대 이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위로능력, 사회불안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위로능력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상담현장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 개인의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유의미하게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더 크게 지각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양상(김은정, 2010; 박현, 2008)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아직까지 한국의 기업문화가 남성 직장인들이 여성 직장인들보다 대체적으로 승진 또는 성과, 실적 등에 민감하여 상사와 같은 타인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더 완벽해지는 것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불안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의미하게 사회불안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불안 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정희, 2009)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기위로능력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대학생의 부모화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이정선(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연령대 별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40대 이상의 직장인들이 20대 및 30대 직장인들보다 더 완벽주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따른 완벽주의를 살펴본 김은정(2010)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의 경우, 김지혜와 박지우(2001)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STAI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온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변인에 대한 성별 및 연령대 집단별 비교 결과,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나오기도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었으며, 이는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 그리고 같이 일하는 상사 및 직장 동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남을 유추 해볼 수 있다.

둘째, 상관 분석을 통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우선,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선행연구결과(Chang et., al, 2008; Lee & Rhyu, 2002)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간의 부적상관 관계가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현재까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간의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는 없었고, 다만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위로능력과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원선화(2013)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위로능력과의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간의 직접적인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나 아직까지 두 변인간의 상관 및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에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위로능력은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기위로능력이라는 변인이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인 기제와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기채영, 2008; 박준호, 2007; 유은혜, 2008; 이정선, 2010; 정우희, 이지연, 2013; 조아라, 2014; 한영민, 2010; Block & Kremen, 1996; Carver & Scheier,

1991; Greenberg, Wortman, & Stone, 1996). 즉, 심리적으로 위협한 상황에 봉착하였거나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자신의 심리 내적자원을 이용하여 스스로 위로하고 또한 타인의 위로를 함께 수용함으로써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에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에 따라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한 사회불안의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였으며, 자기위로능력이 낮은 집단의 사회불안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의 경우, 그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회불안과 같은 불유쾌한 정서를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유쾌하지 않은 정서를 자신의 내적 자원을 통하여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이와 더불어 불유쾌한 정서를 위로해주는 타인의 격려를 함께 수용할 수 있다면 사회불안을 낮추는데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대별로 나누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성별의 경우, 여성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화와 우울, 신체화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를 본 이정선(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는 상황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적게 받고, 같은 위기상황에 봉착하였을 때도 여성이 더 잘 기능하여 정서 및 행동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고, 기분 나쁜 상황에 대해서도 극복하는 속도가 빨라 이전상황과 비슷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이완정, 2002; Dixon, 2002; Honig & Wang, 1997; Masten, Best & Garmezy, 1990).

다음으로, 연령대에 따른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30대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에 따라서도 30대가 체감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한 사회불안이 감소되는 정도가 달라졌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높게 체감할지라도 자기위로능력의 수준이 높으면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30대는 취업을 시작하는 나이이자,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보다 30대에서 더 많이 완벽주의를 체감하고,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느낄 것으로 예상해본다. 또한, 직장 내에서 업무수행, 대인관계등의 이유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타인에게

노출함으로써 ‘나만 그런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스스로 위안을 받고, 타인이 함께 지지해줌으로써 사회불안이 감소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 능력간의 직접적인 부적상관이 있음을 밝힌 최초의 연구로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자기위로능력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본 연구에 대한 결과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위로능력에 관련된 연구들에 대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의 대상층을 직장인으로 선택하고, 이와 더불어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인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상담현장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상담현장에서 직장인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자기위로능력이 불안과 같은 부적응적인 심리적 정서를 감소시킨다는 변인임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해 자각하는 사회불안을 자기위로능력이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자기위로능력이 부적응적인 심리기제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아직 자기위로능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불안 이외의 다른 부적응적 심리적 기제를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층은 수도권 및 충청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대 이상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설문지 회수 후 통계 분석한 결과 20, 30대가 주를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전국의 직장인들에게 일반화 하는데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를 일반화 하고자 할 때는 직장지역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로서 이는 참여자들이 설문을 하는 과정에서 억압 혹은 부인과 같은 방어기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참여자들이 설문을 작성하였던 장소의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좀 더 철저하게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위로능력에 대하여 인구학적 특성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자기위로능력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연령대 및 성차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자기위로능력과 관련하여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를 지지해줄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였기에, 추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를 함으로써 자기위로능력의 변인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대상층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공세영(2014). 남자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자기위로능력에 미치는 영향 :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채영(2008). 대학생의 자기위로, 자기격려, 자기수용과 정신건강의 관계. 한국놀이치료 학회지, 11(4), 65-76.
- 김은정(2010). 직장인의 완벽주의 성향과 목표성향이 성취동기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박지우(2001). 직무스트레스, 자존감, 완벽주의가 직장인의 불안증상 및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697-710.
- 김혜진(2006).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노안영, 정민(2007). 자기격려-낙담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75-692.
- 노정식(2009). 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관리, 공연불안 및 공연몰입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경(1998). 완벽주의 차원과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상담, 17, 82-102.
- 박정희(2009). 아동기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호(2007).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복생각, 생각억제 및 자기노출이 정서와 주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2008). 서울시 지방공무원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존중감, 분노, 수치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병은(2009). 직장인의 완벽주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재원, 오경자(2010). 사회불안 집단의 사회 및 정서 자극에 대한 해석 편향. 인지행동치료, 10(2), 93-115.
- 원선화(2013). 고등학생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자기위로 능력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은혜(2008).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정서적 적응의 관계. 사회복지학생연구논총, 1, 82-103.

- 윤수영(2001).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문제 해결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완정(2002).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부모요인 분석. 한국아동학회지, 23(1), 1-16.
- 이정선(2011).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우울과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조영아(2001). 사회공포증과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93-104.
- 이지영, 권석만(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정우희, 이지연(2013).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불안,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1(3), 17-30.
- 조아라(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훈, 이정윤(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21-47.
- 하정희, 장유진(2011).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행복감 및 사회적 지지제공의 관계: 사회적지지수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27-449.
-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민(2010).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석인, 현명호(2007).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반응양식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urns, D. D.(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
- Carver, C. S., & Scheier, M. F.(1991). Unresolved issues regarding the meaning and

- measurement of explanatory style. *Psychological Inquiry*, 2(1), 21-24.
- Chang, E. C., Sanna, L. J., Chang, R., & Bodem, M. R.(2008). *A preliminary look at loneliness as a moderator of the link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and anxious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Does being lonely make perfectionistic strivings more distress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 877-886.
- Dixon, S. J.(2002). *Attitudes that reflect resili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coping respond and protective factors in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Dean, P. J., Range, I. M., & Goggin, W. C.(1996). The Escape Theory of Suicide in College Students: Testing a Model that Includes Perfectionism.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6(2), 181-186.
- Flett, G. L., Besser, A., & Hewitt. P. L.(2005). Perfectionism, ego defense styles, and depression: A comparison of self-reports versus informant 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73(5), 1355-1396.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Glassman, E. J.(1989).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 Canada: York Univ.
- Greenberg, M. A., Wortman, C. B., & Stone, A. A.(1996). Emotional expression and physical health: Revising traumatic memories or fostering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588-602.
- Herbert, J. D., Rheingold, A. A., & Brandsma, L. L.,(2001).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and social phobia*. In S. G. Hofmann & P. M. DiBartolo(Eds), *From social anxiety to social phobia: multiple perspectives*. Boston: Allyn & Bacon.
- Hewitt ,P. L.,& Flett, G.L.(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98-101.
- Honig, A. S., & Wang, Y. C.(1997). Child resilience in Taiwanese immigrant families as a function of maternal supports and maternal employ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39(1), 43-48.

- Lee, M-H., & Rhyu, J-H.(2002).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perfectionism - in relations with achievement goal,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3), 293-316.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 425-444.
- Moser, M. L.(1991). *Transitional object and their relationship to self-soothing mechanism in latency aged childre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on
Social Anxiety of employees :
The Moderating Effects of Soothing receptivity**

Lee, Seong-Ryeong · Hong, Hye-Young
Myoungji University, Myoungji University

This study was explo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social anxiety, soothing receptivity,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othing receptivit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in employees. The participants were 493 employees in capital area. The results showed as follows. First,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had a positive relations with social anxiety.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had a negative relations with soothing receptivity, soothing receptivity had a negative relations with social anxiety. Second, the result from multiple analysis suggested that soothing receptivity moderated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Gender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moderated effects of soothing receptivity. also, Age group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moderated effects of soothing receptivity. This study was demonstrated role of soothing receptivity as a moderator against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leading social anxiety, which implies that intervention to the soothing receptivity should be a changed according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level in counseling session.

Based on that, limitations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 for future research were descused.

Key words :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social anxiety, soothing receptivity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혜전*
명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방책을 모색하고자 심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자기성찰 및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성찰과 자아탄력성, 심리적 소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자기성찰, 자아탄력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결혼을 한 심리치료사가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하며, 자기성찰이 심리적 소진을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과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심리적 소진을 낮출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알아보았고,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에 일반적인 특성과 자기성찰,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 심리치료사, 심리적 소진, 자기성찰, 자아탄력성

* 교신저자: 정혜전(chj92y@hanmail.net)

■ 게재 신청일 : 2015년 11월 27일 ■ 최종 수정일 : 2016년 1월 19일 ■ 게재 확정일 : 2016년 1월 22일

I. 서론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아동에서부터 성인에게까지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 우울감, 부적응 등이 심각한 문제들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여기면서 상담 및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심리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심리치료사(김동연, 1991)의 역할 또한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심리치료사란 놀이, 미술, 상담 등의 심리적 기법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Corey(1999)는 경험과 인간적 자질은 상담 및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려면 치료사 자신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잘 보살펴서 활기찬 생활을 해야 하고, 활력을 소진시키거나 무력감을 느끼게 할 위험이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미리 잘 다루어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Maslach(1982)는 심리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심리치료사는 일에 대한 목적이 상실되어 의욕이 낮아지고, 매사에 무관심해지며, 냉소적으로 되고, 피로 같은 증상을 쉽사리 느끼게 되는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치료에 아무런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내담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로 진전되어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심리적 소진은 분명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애매한 과정(Vachon, 1980)으로서, Freudenberger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치료사들의 정서적·신체적 탈진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Maslach(1982)는 심리적 소진은 정서적 소모감과 무력감을 가져오고, 심리치료사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은 내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상담과 치료에서 아무런 만족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없게 만든다고 하였고, 심리적 소진은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특성이 있다(김정희, 2001). 따라서 효과적인 심리치료의 수행을 위해 심리적 소진을 줄이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이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성찰이란 애매모호한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분석하고, 생각해보는 과정(Schon, 1983)으로,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은 심리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의 역동이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과 이해의 활동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실제 상담과 치료는 사례에 따라서 내담자가 가지고 오는 문제들은 지극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담 이론이나 기법 등 획일적인 기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는 치료사가 스스로 치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Nelson & Neufeldt, 1998). 따라서 자기성찰이 활발한 심리치료사는 치료 상황에서 치료적 도구로서 자신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자아개념의 한 측면으로, 문제 상황이나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태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능력이다(Block, 1980). 자아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장경문, 2003) 자아탄력적인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비탄력적인 사람은 적응능력, 회복능력이 떨어지고(김현옥, 2010), 융통성 있게 자아통제를 하지 못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지 못한다(김미화, 2003). 심리적 소진은 환경의 요구가 대처하는 사람의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써 개인이 능력, 목적의식을 상실해 가는 과정(Clark, 1980)이므로, 자아탄력적인 심리치료사는 심리적 소진이 오더라도 문제 상황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자아탄력성과 자기성찰, 심리적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가은, 2012; 오숙경, 2013), 자기성찰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성찰의 하위요인인 타인이해와 심리적 소진의 하위요인인 비인간화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김귀숙, 2013).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자아탄력성이 높고 자기성찰을 하는 심리치료사는 소진에 대한 저항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성찰과 자아탄력성을 상정하여 자기성찰과 자아탄력성이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심리치료사가 심리적 소진에 대한 대처방안과 예방 교육 및 훈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심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기성찰, 자아탄력성, 심리적 소진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2.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심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자기성찰 및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성찰

성찰은 반성하거나, 사고하거나, 숙고하거나, 성찰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자기성찰의 개념은 Dewey가 성찰의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발전된 개념이다. Dewey(1993)는 “성찰을 통해 모호하고, 의심스럽고, 갈등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던 경험들이 분명하고 조화를 이루고, 통합된 경험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였다.

Dewey(1993)에 의하면, 성찰의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찰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습관을 발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성찰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지식과 실천과의 역동적인 대화를 통해 지속되는 사고의 과정으로 이는 새로운 지식 혹은 새로운 경험의 요소가 투입될 때마다 심화되고 발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성찰은 조력 전문직에서 전문성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제로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상담과 심리치료분야에서 여러 연구자(김진숙, 2005; 손은정, 2003; 김귀숙, 2013)들에 의해 성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성찰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성찰은 심리치료사의 전문성 발달 및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아탄력성

자아란 성격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개인과 현실을 중재하며 내·외적 자극에 대한 방책으로서 현실에서의 적응력을 나타낸다. 즉 자아는 내부와 외부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이성과 신중함을 통하여 현실과 사회로부터 가해지는 요구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Barron, 1953).

정신분석학적인 조명에서 탄력성을 정의한 Block은 ego라는 접두사를 붙여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라 명명하고,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을 변화시키고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하였다(Block, 1980).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은 높아진다(박현진, 1996).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 정도가 낮다고 한 선행연구들에서(김가는, 2012; 오숙경, 2013) 밝혀졌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심리치료사의 자아탄력성은 자기성찰과 심리적 소진을 낮추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3. 심리적 소진

소진(burnout)이란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짐 또는 다 써서 없앴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리적 소진에 대한 용어는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초 연구자인 Freudenberger(1974)는 일에서 생기는 정서적인 탈진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소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Maslach와 Jackson(1981)은 심리적 소진을 조력적 직업종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개념화하면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과 집중적인 관계를 지낼 때 갖게 되는 만성적인 정서적 긴장에 따른 반응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Maslach와 Jackson(1981)의 이론에 근거하여 박희현과 김광웅(2005)이 아동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하위요소로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첫째 요소는 Maslach(1982)의 ‘정서적 소모’와 같은 의미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일에 대한 싫증, 정서적 탈진감, 상담에 대한 관심과 흥미의 상실 등을 나타낸다. 둘째 요소는 ‘직업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에 있어서 자신감 상실, 성취감 감소와 상담자라는 직업 선택에 대한 후회와 갈등을 뜻한다. 셋째 요소는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상담에 대한 직·간접적인 회피와 거부 등을 나타낸다. 넷째 요소는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으로서 심리적 소진이 내담자를 제외한 다른 대인관계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하위요소는 ‘신체화 증상’으로서 심리치료사가 심리적 소진을 경험할 때 보이는 육체적 질환이나 신체적 장애 등을 나타낸다.

이처럼 심리적 소진은 심리치료사가 심리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신체적·정신적 압박감을 받음으로써 겪는 심리적 고갈 상태로 자신과 내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심리치료사의 개인적 성취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의 복지관, 병원, 학교, 상담센터 및 치료센터 등에서 심리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90명의 심리치료사(심리상담사 55명, 놀이치료사 24명, 미술치료사 11명)들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연령은 39세 이상이 25.6%로 제일 많았고, 21세~26세는 28.9%, 27세~32세와 33세~38세는 둘 다 17.8%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57.8%, 기혼이 42.2%이었다. 학력은 석사과정 및 수료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석사졸업(27.8%), 학사졸업(18.9%), 박사 과정 및 수료 이상(13.3%) 순이었다. 심리치료 경력은 1년 이하가 36.7%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이 26.7%, 1년~3년이 24.4%, 3년~5년이 12.2%이었다. 슈퍼비전은 1~10회기가 43.8%로 가장 많았고, 슈퍼비전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가 16.8%, 11~20회기가 12.4%, 그리고 21회기 이상이 27%이었다. 교육분석은 1회~10회기가 27.8%로 가장 많았고, 11~30회기가 30%, 교육분석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가 26.7%, 그리고 31회기 이상이 15.6%이었다. 집단상담 경험은 1~3사례가 38.9%로 가장 많았고, 4~10사례가 25.6%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11사례 이상이 18.9%, 집단상담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16.7%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0)

변인	구분	N	%
연령	21세 ~ 26세	26	28.9
	27세 ~ 32세	16	17.8
	33세 ~ 38세	16	17.8
	39세 이상	32	35.6
결혼 여부	미혼	52	57.8
	기혼	38	42.2
학력	학사졸업	17	18.9
	석사과정 및 수료	36	40
	석사졸업	25	27.8
	박사 과정 및 수료 이상	12	13.3
치료 경력	1년 이하	33	36.7
	1년 ~ 3년	22	24.4
	3년 ~ 5년	11	12.2
	5년 이상	24	26.7
슈퍼비전	없음	15	16.8
	1 ~ 10회기	39	43.8
	11 ~ 20회기	11	12.4
	21회기 이상	24	27
교육 분석	없음	24	26.7
	1 ~ 10회기	25	27.8
	11 ~ 30회기	27	30
	31회기 이상	14	15.6
집단상담 경험	없음	15	16.7
	1 ~ 3사례	35	38.9
	4 ~ 10사례	23	25.6
	11사례 이상	17	18.9

2. 측정도구

가. 자기성찰 척도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을 측정하기 위해 황주연(2011)이 제작한 상담자 자기성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탐색 5문항(예, 나는 화가 나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

는지 생각해본다), 자기이해 5문항(예, 내가 겪었던 경험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발견하곤 한다), 타인탐색 5문항(예, 상대방과 생각이 다를 때 그가 내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본다), 타인이해 5문항(예, 상대방과 충돌이 생길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의 Likert 5점 척도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주연(2011)의 연구에서 전체 총점의 신뢰도는 0.90이며, 본 연구의 자기성찰 전체와 각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2> 자기성찰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수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자기탐색	5	1, 2, 3, 4, 5	.86
자기이해	5	6, 7, 8, 9, 10	.81
타인탐색	5	11, 12, 13, 14, 15	.76
타인이해	5	16, 17, 18, 19, 20	.81
전체	20		.91

나. 자아탄력성 척도

심리치료사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Klohn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현진(1996)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 9문항(예, 나는 확실히 자신감이 부족하다),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예, 낯선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것이 어렵다), 낙관적 태도 10문항(예, 내가 보기에 미래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분노조절 2문항(예, 나는 종종 별걱 화를 낸다)의 Likert 5점 척도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현진(1996)의 연구에서 전체 총점의 신뢰도는 0.88이며, 본 연구에서의 자아탄력성 전체와 각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3>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수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자신감	9	7, 10, 11, 12, 13, 22, 23, 23, 26	.87
대인관계 효율성	8	3, 4, 5, 8, 9, 14, 15, 21	.80
낙관적 태도	10	1, 2, 6, 16, 17, 18, 20, 25, 28, 29	.75
분노조절	2	19, 27	.64
전체	29		.91

다. 심리적 소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심리치료사가 정서적으로 소모되어 무기력감을 느끼며, 직업적 회의와 심리치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을 심리적 소진으로 보았다. 따라서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박희현과 김광웅(2005)이 개발한 아동상담자 의욕상실 척도 중 3개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아동상담자 의욕상실 척도는 정서적 소모, 직업적 회의,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 신체화 증상으로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치료사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소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여 정서적 소모 11문항(예, 나는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직업적 회의 13문항(예, 나는 이 일로 인해 짜증스러움을 느낀다),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4문항(예, 내담자가 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많다)의 Likert 5점 척도 총 2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박희현과 김광웅(2005)의 연구에서 전체 총점의 신뢰도는 0.95이며,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소진 전체와 각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심리적 소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수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정서적 소모	11	1, 2, 3, 4, 5, 6, 7, 8, 9, 10, 11	.90
직업적 회의	13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91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4	25, 26, 27, 28	.76
전체	28		.95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12월 01일까지 약 2주간,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의 복지관, 병원, 학교, 상담센터 및 치료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사 및 놀이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심리치료사 90명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E-mail 또는 SNS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90부를 모두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성찰, 자아탄력성, 심리적 소진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사후검증으로 Scheffe를 실시하였다.

자기성찰, 자아탄력성, 심리적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소진에 대한 자기성찰, 자아탄력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 자아탄력성, 심리적 소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과 자아탄력성, 심리적 소진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위요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성찰의 차이는 <표 5>의 결과와 같다. 학력에 따른 자기성찰은 타인이해($F=6.092$, $p<.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표 6>의 결과와 같다. 연령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 효율성($F=3.365$,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결혼 여부에서는 자신감($t=2.063$, $p<.05$)과 대인관계 효율성($t=2.480$, $p<.05$), 심리치료 경력에서는 자신감($F=5.664$, $p<.01$)과 대인관계 효율성($F=2.793$, $p<.05$), 그리고 분노 통제($F=4.298$,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는 <표 7>의 결과와 같다. 연령에 따른 심리적 소진은 정서적 소모($F=3.43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결혼 여부에서는 정서적 소모($t=3.433$, $p<.05$)와 직업적 회의($t=-2.25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력에서는 직업적 회의($F=3.638$,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심리치료 경력에서는 정서적 소모($F=4.707$, $p<.01$)와 직업적 회

의(F=3.744,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존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의 세 가지 변수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이 밝혀졌다(강소영, 2014; 김가은, 2012).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성찰의 차이

(N=90)

일반적 특 성	구분(N)	자기성찰 M(SD)			
		자기탐색	자기이해	타인탐색	타인이해
연령	21세 ~ 25세(19)	4.25(.57)	4.07(.36)	4.19(.33)	3.80(.57)
	26세 ~ 30세(21)	4.21(.48)	4.04(.62)	3.92(.57)	3.84(.68)
	31세 ~ 40세(25)	4.02(.37)	3.90(.42)	3.92(.47)	3.70(.42)
	41세 이상(25)	4.22(.78)	4.21(.61)	3.90(.66)	4.10(.58)
	F	.776	1.522	1.156	2.240
결혼 여부	미혼(52)	4.20(.50)	4.07(.47)	4.02(.55)	3.80(.58)
	기혼(38)	4.13(.66)	4.03(.59)	3.90(.50)	3.95(.57)
	t	-.558	-.335	-1.058	1.201
학력	학사졸업(17)	4.32(.47)	3.97(.59)	4.02(.46)	3.57(.67)a
	석사과정 및 졸업(61)	4.10(.61)	4.04(.49)	3.95(.52)	3.86(.52)ab
	박사과정 이상(12)	4.35(.42)	4.25(.59)	3.98(.68)	4.28(.45)b
	F	1.708	1.115	.083	6.092**
심리치료 경력	1년 이하(33)	4.22(.56)	4.00(.55)	4.08(.52)	3.73(.71)
	1년 ~ 3년(22)	4.17(.59)	3.99(.46)	3.84(.50)	3.74(.42)
	3년 ~ 5년(11)	4.04(.20)	4.02(.19)	3.82(.37)	3.95(.54)
	5년 이상(24)	4.16(.70)	4.20(.63)	4.00(.62)	4.12(.54)
	F	.295	.859	1.291	2.678

※ *p<.05, **p<.01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N=90)

일반적 특 성	구분(N)	자아탄력성 M(SD)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연령	21세 ~ 25세(19)	3.77(.68)	3.60(.95)a	4.08(.52)	3.45(.85)
	26세 ~ 30세(21)	3.70(.59)	3.77(.53)a	4.01(.50)	3.36(.85)
	31세 ~ 40세(25)	3.83(.64)	3.68(.54)a	4.12(.40)	3.70(1.14)
	41세 이상(25)	4.05(.70)	4.16(.57)a	4.27(.50)	3.56(.92)
	F	1.287	3.365*	1.212	.715
결혼 여부	미혼(52)	3.73(.60)	3.67(.71)	4.05(.49)	3.47(.89)
	기혼(38)	4.01(.70)	4.02(.58)	4.24(.46)	3.67(.96)
	t	2.063*	2.480*	1.824	1.016
학력	학사졸업(17)	3.65(.56)	3.54(.86)	4.05(.46)	3.50(.83)
	석사과정 및 졸업(61)	3.85(.68)	3.86(.62)	4.12(.50)	3.56(.93)
	박사과정 이상(12)	4.09(.64)	3.99(.64)	4.27(.40)	3.63(1.09)
	F	1.586	2.007	.765	.064
심리치료 경력	1년 이하(33)	3.67(.67)a	3.59(.75)a	4.02(.50)	3.50(.88)a
	1년 ~ 3년(22)	3.61(.58)a	3.81(.60)a	4.05(.52)	3.07(.82)ab
	3년 ~ 5년(11)	4.06(.65)ab	3.86(.57)a	4.19(.50)	3.86(.71)ab
	5년 이상(24)	4.27(.55)b	4.10(.59)a	4.32(.37)	3.94(.97)b
	F	5.664**	2.793*	2.129	4.298**

※ * $p < .05$, ** $p < .01$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

(N=90)

일반적 특 성	구분(N)	자기성찰 M(SD)			
		자기탐색	자기이해	타인탐색	타인이해
연령	21세 ~ 25세(19)	4.25(.57)	4.07(.36)	4.19(.33)	3.80(.57)
	26세 ~ 30세(21)	4.21(.48)	4.04(.62)	3.92(.57)	3.84(.68)
	31세 ~ 40세(25)	4.02(.37)	3.90(.42)	3.92(.47)	3.70(.42)
	41세 이상(25)	4.22(.78)	4.21(.61)	3.90(.66)	4.10(.58)
	F	.776	1.522	1.156	2.240
결혼 여부	미혼(52)	4.20(.50)	4.07(.47)	4.02(.55)	3.80(.58)
	기혼(38)	4.13(.66)	4.03(.59)	3.90(.50)	3.95(.57)
	t	-.558	-.335	-1.058	1.201
학력	학사졸업(17)	4.32(.47)	3.97(.59)	4.02(.46)	3.57(.67)a
	석사과정 및 졸업(61)	4.10(.61)	4.04(.49)	3.95(.52)	3.86(.52)ab
	박사과정 이상(12)	4.35(.42)	4.25(.59)	3.98(.68)	4.28(.45)b
	F	1.708	1.115	.083	6.092**
심리치료 경력	1년 이하(33)	4.22(.56)	4.00(.55)	4.08(.52)	3.73(.71)
	1년 ~ 3년(22)	4.17(.59)	3.99(.46)	3.84(.50)	3.74(.42)
	3년 ~ 5년(11)	4.04(.20)	4.02(.19)	3.82(.37)	3.95(.54)
	5년 이상(24)	4.16(.70)	4.20(.63)	4.00(.62)	4.12(.54)
	F	.295	.859	1.291	2.678

* $p < .05$, ** $p < .01$

2. 심리적 소진에 대한 심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자기성찰 및 자아탄력성의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심리적 소진과 자기성찰, 그리고 자아탄력성 간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하위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다음으로 심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성찰,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델1에는 결혼여부와 심리치료 경력 등 놀이치료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델2에는 자기성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으며, 모델3에는 모델2에 더해 자아탄력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모델1에서 심리치료 경력이 심리적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70$, $t=-2.47$, $p<.05$), 모델 설명력은 12.8%이었다 ($F=6.42$, $p<.01$).

〈표 8〉 자아탄력성, 자기성찰, 심리적 소진 간 상관관계

(N=90)

		1	2	3	4	5	6	7	8	9	10	
자아 탄력성	1	1										
	2	.738***	1									
	3	.738***	.574***	1								
	4	.513***	.317**	.434***	1							
자기 성찰	5	.151	.163	.212*	.015	1						
	6	.253*	.248*	.195	.086	.661***	1					
	7	.167	.098	.138	.081	.447***	.601***	1				
	8	.396***	.302**	.429***	.242*	.352***	.573***	.557***	1			
심리적 소진	9	-.688***	-.530***	-.753***	-.563***	-.142	-.084	-.082	-.315**	1		
	10	-.738***	-.622***	-.690***	-.427***	-.124	-.157	-.140	-.378***	.724***	1	
	11	-.593***	-.499***	-.500***	-.247*	-.101	-.164	-.163	-.330**	.534***	.750***	
		1	2	3	4	5	6	7	8	9	10	11
평균		3.847	3.815	4.130	3.556	4.171	4.053	3.969	3.862	2.465	2.081	2.180
표준편차		.659	.677	.481	.922	.572	.523	.528	.576	.724	.678	.748

※ * $p<.05$, ** $p<.001$, *** $p<.0001$

※ 1=자신감, 2=대인관계 효율성, 3=낙관적 태도, 4=분노 통제, 5=자기탐색, 6=자기이해, 7=타인탐색, 8=타인이해, 9=정서적 소모, 10=직업적 회의, 11=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

즉,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은 심리치료의 경험이 많을수록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에 더해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2의 경우, 모델 설명력이 모델1에 비해 5.4% 증가한 18.2%이었다($F=6.41$, $p<.001$). 그리고 모델1과 마찬가지로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이 심리치료 경력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42$, $t=-2.25$, $p<.05$), 자기성찰이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34$, $t=-2.39$, $p<.05$). 즉, 심리치료 경험이 많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하며, 자아성찰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성찰에 더해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모델3의 설명력은 49.7% 증가한 67.8%로 나타나($F=44.95$, $p<.0001$),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모델3에서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93, t=-11.46, p<.001$). 즉, 심리적 소진에 무엇보다도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9〉 심리적 소진에 대한 심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 및 자기성찰의 상대적인 영향력

(N=90)

심리적 소진	예측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β	t	β	t	β	t
심 리 적 소 진	일반적 특성	결혼여부(기혼)	-.150	-1.37	-.167	-1.56	-.040	-.590
		심리치료 경력	-.270*	-2.47	-.242*	-2.25	-.059	-.85
		자기성찰			-.234*	-2.39	.004	.07
		자아탄력성					-.793***	-11.46
	F		6.42**		6.41***		44.95***	
	R2		.128		.182		.679	
	R2 증가량				.054		.497	

※ n=90, * $p<.05$, ** $p<.01$, *** $p<.001$

V. 논의 및 제언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 우울, 부적응 등이 심각한 문제들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리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심리치료사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심리치료사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자아탄력성이 낮거나 자기성찰이 부족하다면 그들이 심리치료 활동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소진의 경험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심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성찰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진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기성찰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자기성찰 및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밝혀 논의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 자아탄력성, 심리적 소진의 차이

심리치료사의 자아탄력성은 연령, 결혼 여부, 심리치료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자아탄력성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효율성에 대한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21세~25세 심리치료사보다 41세 이상의 심리치료사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른 자아탄력성을 살펴보면, 자신감과 대인관계 효율성에 대한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기혼인 심리치료사가 자신감이 더 높고 대인관계 효율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 경력에 따른 자아탄력성을 살펴보면, 자신감과 대인관계 효율성, 분노 통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5년 이상의 심리치료 경력자가 더 높은 수준의 자신감과 대인관계 효율성, 분노 통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치료 경력에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은 학력에 따른 자기성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자기성찰을 살펴보면, 타인이해에 대한 자기성찰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박사과정 이상이 학사졸업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타인이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은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심리치료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심리적 소진을 살펴보면, 정서적 소모에 대한 심리적 소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21세~25세가 41세 이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소모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른 심리적 소진을 살펴보면, 정서적 소모와 직업적 회의에 대한 심리적 소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기혼인 심리치료사가 미혼인 심리치료사보다 정서적 소모와 직업적 회의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심리적 소진은 직업적 회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사졸업 이상이 박사과정 이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적 회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 경력에 따른 심리적 소진은 정서적 소모와 직업적 회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정서적 소모의 경우 1년 이하가 5년 이상보다 정서적 소모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리적 소진에 대한 심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자기성찰 및 자아탄력성의 상대적 영향력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심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들(연령, 결혼 여부, 심리치료 경력)과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 및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상대

적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일반적 특성, 자기성찰 및 자아탄력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우선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고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하며 심리치료 경력이 많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을 한 놀이치료자는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한 고은하(2001)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놀이치료자의 결혼여부가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힌 김가은(2012)과 박희현과 김광웅(2006)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강소영(2014)은 기혼자일수록 심리치료과정에서 받은 내적·외적 스트레스를 가족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심리적 소진을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심리적 소진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자기성찰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특성의 심리치료 경력과 자기성찰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심리치료 경험이 많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고 자기성찰이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심리적 소진에 대해 일반적 특성과 자기성찰, 자아탄력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특성과 자기성찰에 더해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모델3의 설명력은 49.7% 증가한 67.8%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소진에 무엇보다도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진을 비교할 수 있는 특성들을 비교함으로써 심리치료사가 자아탄력성과 자기성찰을 높이고 심리적 소진을 줄여 심리치료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특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에 심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자기성찰과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처 방안들을 위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건강을 물론 대상 내담자들에게 제공되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셋째, 현재 심리적 소진에 관한 연구들 중 자기성찰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보고되어 있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심리치료사의 소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자기성찰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90명으로 대상자의 표집 지역이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가진 심리치료사를 표집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자아탄력성, 자기성찰이라는 자기 보고식 척도를 활용한 개인내적인 변인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심리치료사의 개인 외적인 변인에 대하여 심리적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의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놀이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쌓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소영(2014). 놀이치료사의 자기효능감 및 역전이 관리 능력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하(2001).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경험과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가은(2012). 놀이치료사의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귀숙(2013). 상담자의 자기성찰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연(1991). 외국의 심리치료사 자격제도 소고. 심리치료연구, 2, 5-23.
- 김미화(200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01). 상담자의 자기관리. 한국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제 11회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자료집, 5-17.
- 김진숙(2005). 상담자교육에서 성찰적 실천의 의미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17(4), 813-831.
- 김현옥(2010).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역량지각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진(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현(2005).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burnout)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희현·김광웅(2005).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burnout) 측정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18(2), 39-56.
- 박희현·김광웅(2006).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에 대한 상담자 개인적 특성의 영향. 아동학회지, 27(3), 29-51
- 손은정(2003). 반성적 사고와 전문가 교육.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8, 31-54.
- 오숙경(2013). 청소년상담자의 자아탄력성과 효능감이 소진(burnout)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문(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 황주연(2011). 자기성찰 척도개발 및 자기관과 자기성찰, 안녕감간의 경로모형의 검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rron, F. (1953). An ego-strength scale which response to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27-333.
- Block, J.(1980). *Readings in Philosophy of Psychology*, 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Clark, C. C.(1980). Burnout: Assessment and intervention. *J. Nurs Adm.* 10, 39-43.
- Corey, G.(1999).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acific Grove : Brooks/Cole.
- Dewey, J.(1933). *How wethink*. Boston: Heath.
- Kloh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Maslach, C.(1982). *Burnout, the cost of caring*.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Maslach, C. & Jackson. S. E.(1981).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y Press.
- Nelson, M. L., & Neufeldt, S. A.(1998). the pedagogy of counseling: A critical examin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2), 701-89.
- Schon, D. A.(1983). *The reflective prac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Books.
- Vachon, M. L. S.(1980). Care for the caregivers. *Canadian Nurse*, 28. 411-421.

〈Abstract〉

The Effects of Self-reflection and Ego-Resilience on the Psychological Burnout

Chung, Hye Jeon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k a preventive measure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psychological burnout of psychology therapis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elf-Reflection and Ego-Resilience of psychology therapists on the psychological burn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Reflection,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burnout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sychology therapists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 results of relative influence of Self-Reflection and Ego-Resilience in term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sychological burnout of psychology therapists, the married psychology therapist has less psychological burnout. Also this study showed that Self-Reflection have negative effect on psychological burnout and a psychology with high Self-Reflection experiences low psychological burnout.. As abov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sychology therapists that can increase the Self-Reflection and Ego-Resilience, and decrease the psychological burnout, and the effect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elf-Reflection and Ego-Resilience on the psychological burnout of psychology therapists.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as it provide basis in preparing a plan to prevent the psychological burnout.

Key words : Psychology therapist, Psychological Burnout, Self-Reflection, Ego-Resilience

통합치료연구 제7권 2호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2015. Vol. 7 No. 2, 81-102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자존감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분석 -

노우빈* · 홍혜영**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존감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전 지역 대학생 44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회부된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존감과 부적 상관,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에 정적 상관을, 자존감은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에 부적 상관을, 사회불안은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렇듯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며 이론적 배경을 통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 하지만, 구조모형의 경로 검증 결과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논하였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여 마무리 하였다.

핵심어 :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

* 본 연구는 노우빈(2015)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자존감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분석”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 2015년 11월 30일 ■ 최종 수정일 : 2016년 1월 20일 ■ 게재 확정일 : 2016년 1월 22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0년대부터 공격성의 한 유형으로 구분되는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은 (Crick & Grotpeter, 1995), 인간발달이 이뤄지는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난다(최지영, 배라영, 2014). 이에 따라, 초기에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점차 대상의 범주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국외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 동향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활발한 연구를 실시하며(Bascow et al., 2007; Jean-Nestor & Zuo, 2012), 연령 및 성차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Loukas, Paulos & Robinson, 2005).

관계적 공격성이란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방법으로써 관계를 조작하고 상대방을 속상하게 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Kolbert et al., 2012). 최근에는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s)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되고(한영경, 김은정, 2011), 자기애와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가진 변인들과 관련을 나타내며 자기애 문화(culture of narcissism)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기애 문화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개인적이고 경쟁적이며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모습을 형성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고 자신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감으로부터 부적응적인 삶을 산다(Gurstein, 2006). 이와 같은 현대인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로 구분되며(APA, 2013),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타인에 대해 강한 분노감과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다(Salmivalli, 2001). 또한, 자기애 성향자들은 내면 안에 있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의식으로부터 낮은 자존감을 형성한다(권석만, 한수정, 2014). 자존감의 취약성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의 특징 중 하나이며(APA, 2013),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 있는 주요 변인으로써 자기애와 함께 다뤄진다(홍명숙, 어주경, 2013).

자기애의 하위유형으로 구분되는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 성향자들은 내면 안에 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다(서수균, 2007).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하여 심리적으로 쉽게 상처를 받는 모습을 나타내며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과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정남운, 2001). 우리나라 대학생의 약

54.9%가 모임, 만남, 그리고 면접과 같은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나타내고 있으며(김은정, 2010), DSM-5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로 분류하고 있다(APA, 2013).

행동의 설명과 예측을 위해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형태주의(gestaltism) 관점에 따라 주변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주는 영향적인 측면을 간과 할 수 없으며, 현대인들이 나타내는 사회불안과 공격적인 성향은 현대사회의 문화적 측면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강형식, 2006). 자기애 문화속의 현대인들은 타인을 평가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 가를 우선시하여(Gurstein, 2006) 높은 사회불안을 겪으며,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계적 공격성과 같은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다(현지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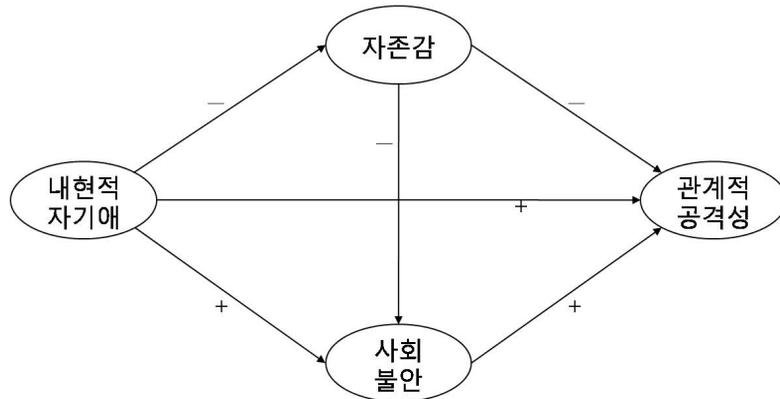
이렇듯 오늘날 자기애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적 공격성의 연구는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국외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되어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대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사회불안과(최인선, 최한나, 2013), 최근 공격성의 한 유형으로 구분되는 관계적 공격성에 접근하고자 하며, 자존감이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박혜원, 하정연, 문지혜, 2011).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자존감과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애와 자존감, 사회불안,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내현적 자기애와 자존감, 사회불안은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자존감과 사회불안은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관계적 공격성

Crick과 Grotpeter(1995)은 공격성을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적 공격성과 또래 관계에서 자신이 의도한 조작을 위해 행하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눈다.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에서 관계를 손상시키며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는 방법으로써(Kolbert et al., 2012), 상대방을 모임에서 제외시키거나, 뒷말하기, 소문 퍼뜨리기와 같은 의도적인 조작 등을 말한다. 외현적 공격성과는 적대적 귀인 편향(hostile attribution biases)에서 더욱 분명해지며, 외현적 공격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구적 도발 상황에서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관계적 상황에서 적대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Saket, 2005).

최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성차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성은 여자 청소년뿐만 아닌 남자 청소년에게서도 나타나며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설명할 수 없고(Loukas, Paulos & Robinson, 2005),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한다(한영정, 김은정, 2011).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써 대상을 자신의 모임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좌절-공격성(frustration-aggression) 모델을 바탕으로 자신이 놀림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도발적 상황에 대한 보복적인 반응을 말한다(Caron, 2011).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은 특정 연령, 성별 및 문화와 관계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공격 형태이다(최지영, 배라영, 2014).

2. 내현적 자기애와 자존감

DSM-5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의 자존감 취약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APA, 2013).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수준에서 방어적인 자존감을 나타내어 자신이 우수하고 대단한 존재이며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부터 나타나는 방어적인 모습이며(이세연, 2007), 내면 깊은 곳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열등의식이 있어 불안정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권석만, 한수정, 2014). 자기애적 자존감 조절 모형에 의하면, 부모는 양육과정에서 아이가 자신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보였을 때 아이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거부와 제한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점차 양육자의 태도가 자신의 모습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으로부터 갖는 불안, 분노, 자기회의, 우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웅대한 자기상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 및 성인기의 대인관계에서도 만찬가지이며,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지 않고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격성 등과 같은 방어적인 수단을 사용한다(김효주, 2010). 이렇듯,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여 긍정적인 자존감을 발달시키기가 어려우며(Akhtar & Thomson, 1982), 타인의 비판과 거절을 받는 상황에서 겉으로 표현하며 반응을 보여 자존감을 유지하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와 달리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자존감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을 아예 회피하여 긍정적인 자존감의 발달을 저해한다(권석만, 한수정, 2014).

3.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내면 안에 높은 분노를 담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숨기고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2). 평소 외부 자극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보다 방어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정남운, 2001), 억압되었던 분노가 폭발하면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백승혜, 2004). 선행연구들은 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공격성은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한 범

주로 구분되어 연구된다(김정균, 장석진, 2014).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평소 겉으로는 조용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숨겨진 분노를 통해 반응적이고 관계적인 공격성을 나타낸다(송혜란, 2013).

4.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

사회불안과 내현적 자기애는 임상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응대성, 특권의식 그리고 양가적 자존감과 같은 역기능적 요인으로부터, 자기애와 사회불안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신현민, 2009). 특히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와 달리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수줍음을 보이며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며 사회불안과 연관지어 설명된다. 수줍음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특징으로써 사회불안이 시작되는 10대 중반의 청소년들이 아동기에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다(권석만,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Schurman, 2000), 높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갖는 대학생일수록 사회불안이 증가한다(한혜림, 2003).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과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고 민감한 모습을 보이며 타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인정을 갈구하며 공통적인 모습을 나타낸다(정남운, 2001).

5. 자존감과 관계적 공격성

공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자존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서수균, 권석만, 2002). 내면 안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서수균, 2007).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의 개인 내적 요인들 중 대표적인 변인으로써 자존감이 연구되었으며(백혜정, 황혜정, 2006), 선행연구는 자존감이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한다(김은임, 2011).

6. 자존감과 사회불안

자존감은 양육자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불안한 대인관계로부터 사회불

안을 겪는다(최수진, 2014). 이에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비취지는 자기상도 부정적이다. 이렇듯, 사회불안의 필수조건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으로써, 자기제시 모형에서는 자신이 목적인 인상을 제시하려는 동기가 높지만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사회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김남재, 2000). 즉,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사회불안을 나타낸다(김은정, 2010).

7.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특히 이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방어적인 행동으로써(한영경, 김은정, 2011), 타인에게 직접적이지 않고 최대한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한다(Loudin, Loukas & Robinson, 200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oudin 외 등(2003)의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회불안을 겪는 대학생들이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불안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회피성 성격장애와 매우 유사한 증상을 나타낸다(권석만, 2014).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와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 중 회피적인 성격을 고려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방법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도, 대전 지역의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된 설문지 중 443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자 240명(54.2%), 여자 202(45.6%)명이었으며,

21~25세가 281명(63.4%)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가 133명(30%), 26~29세 22명(5.0%)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155명(35.0%), 2학년 127명(28.7%), 3학년 80명(18.1%), 4학년 66명(14.9%)이었다.

2. 측정도구

가. 또래 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 PCS)

Marsee 외 등(2004)이 제작하여 한영경(2008)이 번안하고, 조지영(2011)이 최종 수정한 것이다. 현재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써(최지영, 배라영, 2014), 총 40문항으로, 20문항의 외현적 공격성(반응적 외현적, 주도적 외현적)과 20문항의 관계적 공격성(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관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관계적 공격성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다, 3=매우 그렇다, 4=확실히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전체항목의 내적신뢰도는 .88이다.

나.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tic Scale; CNS)

Akhtar과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강선희,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으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이며,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3개의 역채점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전체항목 내적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다.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가 제작한 척도로 이훈진, 원호택(1995)이 번안한 것이다. 단일요인으로써, 총 10문항으로 구성된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4개의 역채점 문항을 포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존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신뢰도는 .85이다.

라.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

Watson과 Friend(1969)가 개발한 척도를 이정윤, 최정훈(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이다. 총 28문항으로 사회적 회피(14문항)와 사회적 불안(14문항)으로 구성된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회피 및 불안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12개의 역채점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전체항목 내적신뢰도는 .93이다.

3. 분석방법

SPSS 22.0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2.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으로부터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의 기술통계치, 상관분석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2	3	3-1	3-2	4	4-1	4-2
1. 내현적 자기애	-							
2. 자존감	-.62**	-						
3. 사회불안	.61**	-.52**	-					
3-1. 사회적 회피	.57**	-.51**	.95**	-				
3-2. 사회적 불안	.60**	-.47**	.95**	.80**	-			
4. 관계적 공격성	.30**	-.25**	.14**	.18**	.09**	-		
4-1. 관계적-주도적	.24**	-.19**	.08	.12**	.04	.93***	-	
4-2. 관계적-반응적	.32**	-.28**	.18**	.21**	.12**	.95**	.77**	-
평균(M)	2.74	3.51	2.84	2.66	3.03	1.28	1.25	1.31
표준편차(SD)	.61	.61	.57	.60	.60	.28	.28	.31
왜도(skewness)	.09	-.12	.11	.03	.06	2.69	2.73	2.28
첨도(kurtosis)	-.18	-.22	.68	.51	.39	9.86	9.89	7.31

※ N = 443, * $p < .05$, ** $p < .01$

분석 결과, 관계적 공격성의 왜도와 첨도가 정규분포(왜도 <2 , 첨도 <7)를 충족하지 않아 로그를 취하여 정규성을 나타내도록 변환하였다(이성용, 이정환, 황명진, 2007). 로그변환 후 관계적 공격성의 왜도는 1.78, 첨도는 3.92,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의 왜도는 1.83, 첨도는 4.18,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의 왜도는 1.42, 첨도는 2.34로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상관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자존감($r = -.62$,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며, 사회불안($r = .61$, $p < .01$), 관계적 공격성($r = .30$,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사회적 회피($r = .57$, $p < .01$)와 사회적 불안($r = .60$,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인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r = .24$, $p < .01$),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 = .32$, $p < .01$)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존감은 사회불안($r = -.52$, $p < .01$), 관계적 공격성($r = -.25$,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사회적 회피($r = -.51$, $p < .01$), 사회적 불안($r = -.47$,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며, 관

계적 공격성의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r=-.19, p<.01$),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28, p<.01$)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r=.14, p<.01$)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지만, 사회불안 전체는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인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r=.08, p>.05$)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고,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18, p<.01$)과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중 사회적 회피는 전체 관계적 공격성($r=.18, p<.01$),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r=.12, p<.05$),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21,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사회적 불안은 관계적 공격성 전체($r=.09, p<.05$)와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12, p<.01$)과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r=.04, p>.05$)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가. 측정모형의 검증(Measurement model)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의 잠재변인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각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내현적 자기애가 .94~.92, 자존감이 .73~.94, 사회불안은 .88~.91, 관계적 공격성이 .82~.94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부하량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타당성이 충족한 가운데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48.66	15	.000	.973	.985	.071 (.05~.09)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χ^2 ,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73, CFI=.985,

RMSEA=.071으로 모두 모형 적합도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였다.

나. 구조모형의 경로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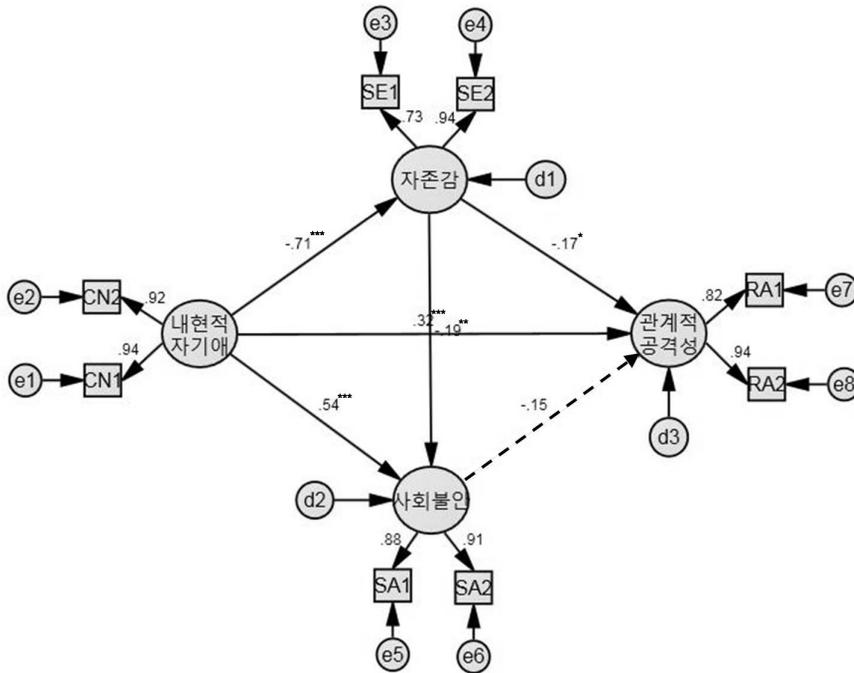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의 경로계수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경로계수

			B	β	SE	t
내현적 자기애	→	자존감	-.59	-.71	.05	-12.03***
내현적 자기애	→	사회불안	.49	.54	.06	8.27***
내현적 자기애	→	관계적 공격성	.08	.32	.02	3.62***
자존감	→	사회불안	-.21	-.19	.07	-3.02**
자존감	→	관계적 공격성	-.05	-.17	.02	-2.24*
사회불안	→	관계적 공격성	-.04	-.15	.02	-1.96

※ * $p < .05$, ** $p < .01$, *** $p < .001$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표준화 계수(B)와 t값을 통해 확인하며, 표준화 계수(β)를 통해 경로의 효과를 확인한다. 본 연구의 경로계수를 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자존감에 $-.71(p < .001)$ 로 유의미한 부적 경로를 나타내며, 사회불안에 $.54(p < .001)$ 와 관계적 공격성에 $.32(p < .001)$ 로 유의미한 정적 경로를 보인다. 자존감은 사회불안에 $-.19(p < .01)$ 와 관계적 공격성에 $-.17(p < .05)$ 의 유의미한 부적 경로를 나타낸다. 하지만,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경로는 $-.15(p > .05)$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구조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p < .05$, $**p < .01$, $***p < .001$

〈그림 2〉 구조모형

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자존감,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 간의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과(indirect effect), 총 효과(total effect)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10000개의 표본 수와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핑은 연구자가 임의로 자료표본의 수와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설정한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값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부트스트랩핑은 전체의 간접효과만을 도출하기 때문에 팬텀변인을 활용하여 개별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해야 한다. 모든 값들은 비표준화 값이다.

<표 4>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내현적 자기에	자존감		-.71** (-.77~- .63)		-.71**
자존감		사회불안	-.19* (-.36~- .03)		-.19*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	-.15 (-.31~.02)		-.15
내현적 자기에	자존감 →	사회불안	.54** (.40~.68)	.14* (.02~.26)	.68** (.61~.74)
내현적 자기에	자존감 사회불안 →	관계적 공격성	.32** (.12~.51)	.02 (-.13~.18)	.34** (.24~.42)
자존감	사회불안 →	관계적 공격성	-.18* (-.36~- .02)	.03 (.00~.09)	-.15 (-.32~- .01)

* $p < .05$, ** $p < .01$

위의 <표 4>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02~.26)만이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내현적 자기에에서 자존감과 사회불안을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13~.18)는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Baron과 Kenny의 조건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려는 간접효과 가운데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포함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와 자존감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자존감의 매개효과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팬텀변인을 이용하였다. 검증 결과, 내현적 자기에가 자존감을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01~.07)가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Phantom 변인을 이용한 개별매개효과

	경로	estimate	(95% 신뢰구간)	
			low	upper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 관계적 공격성	.03**	.01	.07

** $p < .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도, 대전 지역의 대학생 443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사회불안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의 상관관계로부터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특징인 자존감 취약성과(APA, 2013), 회피적이고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으며(정남운, 2001), 공격적인 성향을 확인하였다(백승혜, 2004). 또한, 자존감이 주요 변인들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타인에게 비취지는 부정적인 자기상을 갖고 있어 점점 더 악순환 속에서 사회불안을 겪는 것을 설명하였다(김남재, 2000).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과 사회불안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 사회적 회피와 사회적 불안을 하위유형으로 갖는 사회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권석만, 한수정, 2014).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불안은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만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며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였으며(현지은, 2010),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사회적 회피는 주도적,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불안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도적이거나 반응적인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관계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거나 위협이 되는 상대를 불안으로 인식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Saket, 2005).

둘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변인들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주목할 점은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경로가 앞선 상관관계와 달리 유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경로를 포함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권석만(2014)은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회피성 성격장애와 비교하여 회피적인 성격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말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회피적인 특징을 갖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과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회피적인 특징이 나타나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오면 반응적인 수단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단지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공통된 특징이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정남운, 2001).

셋째,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자존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서경현, 신현진, 김신섭(2011)은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자기애와 자존감을 다뤘으며, 홍명숙, 어주경(2013)의 연구도 자기애와 자존감이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서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사회불안을 관련 변인으로써 연구하였으며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실시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대학생으로 실시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앞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 확장에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었다. 둘째, 대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존감, 사회불안을 함께 검증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대상의 자기애와 자존감과 같은 개인 내적인 심리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셋째, 지금까지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 변인을 함께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사회불안의 역할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갖는 여러 사회적 어려움에 자존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인임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즉, 상담장면에서 만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성공경험에 접근하여 자존감 향상을 시킴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신념을 치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무석, 2014). 다섯째,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인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함께 다뤄지는 변인에 따라 각기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사회적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이에 초기 성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할 때 문항의 수준으로부터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관계적 공격성 척도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 특성상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문항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응답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솔직하지 못한 답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따른 문항에 대한 응답 빈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형태를 나타냈다. 따라서 후에 이루어질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연구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셋째, 모든 척도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자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응답수준이 달라질 수 있었으며, 성실한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연구자는 연구에 앞서 객관적이고 통일된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회피적인 성격적 특성과 회피성 성격장애와 사회불안장애의 유사성(권석만, 2014)에 근거하여, 사회불안 척도를 사회적 회피와 사회적 불안을 하위유형으로 갖는 회피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다른 특성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질 내현적 자기애, 사회불안,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변인들의 다양한 성격적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회불안 척도 사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다양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자존감, 사회불안만을 살펴보았다. 추후에 있을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다양한 변인을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선희, 정남운(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형식(2006). 세상 밖으로 나온 심리학. 서울: 네모박스.
- 권석만(2014). 현대이상심리학 2판. 서울: 학지사.
- 권석만, 한수정(2014). 자기에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김남재(2000). 대인불안과 사회적 자기불일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73-483.
- 김은임(2011).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10). 사회공포증. 서울: 학지사.
- 김정균, 장석진(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791-810.
- 김효주(2010). 자기에 성향자들의 명시적·암묵적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 하정연, 문지혜(2011). 영재와 일반 남아의 자존감 비교 및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별 신체증상 및 공격성 분석. 영재교육연구, 21(1), 83-105.
- 백승혜(2004). 내현적·외현적 자기에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 황혜정(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서경현, 신현진, 김신섭(2011).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의 자존감 및 자기에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10), 143-160.
- 서수균(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서수균, 권석만(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송혜란(2013).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민(2009).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변인으로.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무석(2014).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서울: 비전과 리더십
- 이성용, 이정환, 황명진(2007). 비선형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의 변환에 관한 연구. 통계 연구, 12(2).
- 이세연(2007).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최정훈(1997). 사회공포증의 인지행동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5-56.
- 이훈진, 원호택(1995). 임상분과,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7-290.
- 정남운(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조지영(2011). 소년원 남자 청소년의 불안과 공격성의 관계: 행동활성화체계(BAS), 행동 억제체계(BIS)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진(2014). 사회불안 성향자의 자존감 불안정성.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선, 최한나(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2799-2815.
- 최지영, 배라영(201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3년. 인간 발달연구, 21(1), 181-200.
- 한영경(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경, 김은정(2011). 초기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 하위유형의 특성 탐색: 사회평가불안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4), 985-1002.
- 한혜림(2003).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지은(2010).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명숙, 어주경(2013).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애,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6), 3911-3928.
- Akhtar, M. D. & Thomson, A.(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 disorders: Fifth edition.* 서울 : 학지사.
- Bascow, S. A., Cahill, K. F., Phelan, J. E., Longshore, K., & McGillicuddy-DeLisi, A.(2007). Perceptions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Effects of gender of perpetrato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 85-95.
- Caron, K. M.(2011).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Validation of a two-factor model in relational aggression using emotional functioning variables.* Doctoral of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Gurstein, R.(2006). The culture of narcissism revisited. *Salmagundi, 150*(151), 13.
- Jean-Nestor, G., Zuo, B.(2012). Investigating the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relational aggression and the coping skill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ese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s in Psychology, 1*(3), 75-85.
- Kolbert, J. B., Crothers, L. M., Kanyongo, G. Y., Ng, H. K. Y., Albright, C. M., Jr, E. F., Schmitt, A. J., & Wells, D.(2012). Ego identity and relational and social aggression mediated by elaborative and deep proces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ology and Sociology, 1*, 98-108.
- Loudin, J. L., Loukas, A., & Robinson, S.(2003).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empathy. *Aggressive Behavior, 29*(5), 430-439.
-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ket, K. H.(2005). *Relational aggression: A review and conceptualization.* Doctoral of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Salmivalli, C.(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6, 375-393.

Schurman, C. L.(2000). *Social phobia and covert narciss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right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Watson, D., & Friend, R.(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Abstract〉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Relational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

Noh, Woo-bin · Hong, Hye-Young
Jung-gu Youth Counsel Welfare Center ·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relational aggression and verified the dual-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For this study, a total of 443 college students from Seoul, Incheon, Gyeonggi-do, and Daejeon were surveyed in the hopes of understanding the relations of the above-mentioned variables. The data included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analysis indicat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elf-esteem; the variable, covert narcissism, howeve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and relational aggression, respectively. Meanwhile, self-esteem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as well as relational aggression. Social anxiety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lational aggression. Like this, while the variable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and effect each other, this study model,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background, showed a satisfactory level of “model fitness”. However, the path verif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social anxiety and relational aggression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ccordingly, only self-esteem variable showed th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ore detailed analysis, along with a set of recommendations was provided for future study.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Self-Esteem, Social Anxiety, Relational Aggression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 ③ 본 향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 자격은 회원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6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자. 『통합치료연구』는 연2회 발간(2월 05일, 8월 31일)하고 있다.

차. 부칙 : 본 규정은 2014년 03월 28일부로 시행한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통합치료연구] 투고 논문 작성 양식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4
본문	신명조	11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참고문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 (1줄 띄고 1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 (1줄 띄고 2칸에서 시작, 9.5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9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 사이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심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 에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 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인용문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문 뒤에 “저자(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 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 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와 “출판년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헌” 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 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로 표기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를 표기하고, 외국인인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예: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인용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등으로 표시한다.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2) 영문 :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swallowing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명. 학위수여대학.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 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

(1) 국문 :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

(2) 영문 :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 도시명: 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 (1) p, F, t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 < .001$, $F(1,129) = 2.71$, $t = 4.52$).
-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값과 표 밑의 p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t, * $p < .05$)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 = .003$)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상담심리,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 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정지)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위원장 : 1명
6. 학제 간 연구위원장 : 1명
7. 편집위원장 : 1명
8. 국제교류위원장 : 1명
9. 윤리위원장 : 1명
10. 홍보위원장 : 1명

제14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8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9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결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위원장, 학제 간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20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1. 편집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2. 국제교류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3. 학제 간 연구 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모델 연구
4. 홍보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대외협력 및 홍보

5. 학술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발표, 세미나, 교육특강 등 주관 및 교육

제5장 회 의

제2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운영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6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시 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7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최광현(한세대학교)
편집위원 : 김은연(명지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Dr. Felicity Baker(The University of Melbourne)

통합치료연구 제7권 제2호

2016년 2월 05일 인쇄
2016년 2월 05일 발행

발행인 : 선우현 (한국통합치료학회장)
(우)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경상관 4716호
Tel: 02-300-0881 / E-mail: chj92y@hanmail.net
인쇄처: 동문사

